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빠른 힘

공군



CHINA

• SHINUIJU

PYONGYANG

EAST SEA

YELLOW SEA

Seoul

INCHON

1950년,
한반도의 하늘은...



- 06 삼각지논객 호국보훈의 달, 공군의 영웅들
- 08 Leadership+ 신뢰 받는 개인, 성공하는 삶
- 10 World-Wide Vision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 14 Global AF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다, 두리를 공습작전



- 20 기획특집 공군, 대한민국을 수호한 결정적 힘!
- 28 Pioneers up above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 항공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
- 32 포토프레임@AF
- 34 AIR FORCE MONTHLY
- 38 생각하는 그림 절름발이 강아지를 산 아이

COVER STORY



1950년 한반도의 하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보라매들의 투혼이 없었다면 지금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표지제작 홍순천 | 카투니스트

CULTURE 36.5

42



- 42 Hollywood English 콩푸 팬더 2
- 44 인생은 아름다워 사람이 되고 싶었던, 어느 물의 요정 이야기: 루살카
- 46 Air-Supply 나는 가수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우리는 죽겠습니다
- 48 Preview 6월의 문화행사

OPINION

04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4월호를 읽고서
- 50 창공 글터 6·25전쟁과 인간 그리고 문학
- 52 Health Diary 여름철 요로결석관리
- 54 장병기고 업무 노하우 작성하여 활용합시다
- 56 책마을 아프니까 청춘이다

※ Behind the Canvas는 호국보훈의 달 기획특집으로 인해 한 회 쉽니다.

MONTHLY MAGAZINE

VOL. 396. 2011. 06

발행일자 2011년 5월 27일(통권 제396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중위 기용호, 소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4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변개]이다. 공군 개개인의 에너지를 짧은 순간에 01
합쳐 시너지를 창출해내고, 그 강력한 힘으로 적을 무찌르는게 공
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의 무기인 번개
처럼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최상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월
호에서는 <기획특집>을 가장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필자들의 글이
모두 재치 넘치고 개성적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오래전에 '별간
마후라'라는 공군영화가 크게 히트했었다고 들긴 했지만, 영화수
출시 원본필름을 보낸 탓에 유실됐다는 안타까운 사실은 처음 알
게 됐습니다. - 전북 익산시, 김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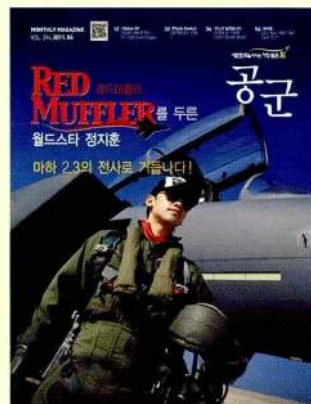
02 월간 「공군」은 [사진]이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새로운 비행기
들과 헬기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4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Global AF>의 '이글의 새로운 변신, F-15 SE'
입니다. 현재 저는 공군에 복무하는 장병으로 우리나라의 F-
15K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
으로도 더 재미있고 흥겨운 글들과 사진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월간 「공군」 파이팅! - 대전 유성구, 이정민

월간 「공군」은 [복권]이다. 굵어가는 긴장감은 펼친 순간순간의 03
흥미로움이며, 굵고 난 후의 당첨이란 읽고 난 후의 거대한 쾌
감. 만약 짝이라 하면 다음을 기억하게 되는 기대감, 중독적인
매력의 월간 「공군」! 저는 <Photo Sketch> '공군특수비행팀 블
랙이글스 훈련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Victory Break,
Rain Fall, Loop 등을 담아놓은 사진을 넷을 놓고 보다 '내가
조종사였다면?'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어요. 지금은
코팅해서 책갈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엽서를 보내는 건 처
음이지만 매달 열심히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건
강하세요!! - 충남 홍성군, 이충재

04 월간 「공군」은 [열정]이다. 열띤 노력과 정이 살아 숨쉬는 군대 04
이기 때문입니다. 4월호에서는 <Photo Sketch>의 '공군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 훈련현장'이라는 기사가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수놓은 다양한 배열과 대칭이 공군의 위엄과 기상을 잘
나타내줬다고 생각합니다. 블랙이글스가 우리나라도 지키고 국
민들의 보는 즐거움도 더해줘서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 서울 영등포구, 조창희

월간 「공군」은 [설렘]이다. 이번호를 읽고 나면, 다음호가 기다 05
려집니다. 그런 연유로 월간 「공군」은 제게 있어 설렘 그 자체
입니다. 4월호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나왔던 '투란도트,
그 치명적인 냉혹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래도 병영생활을 하
다보면 문화생활을 많이 갈구하는데,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
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기사여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 경북 구미시, 신재근

06 월간 「공군」은 [공기]이다. 공기는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소 06
중한 존재이므로, 월간 「공군」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공군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심플하면서도
확찬 표지와 기사들이 마음에 쏙~ 와닿던 것 같아요. 처음인
데도 긴장감보다는 편안한 친근감이 느껴지는 책이었던 것 같
아요. 앞으로도 「공군」과 함께하고 더더욱 사랑하는 예쁜 독자
들께요. 감사합니다~~~~~ - 전북 장수군, 양서희



Global & Insight

호국보훈의 달, 공군의 영웅들

* 삼각지 논객

신뢰 받는 개인, 성공하는 삶

* Leadership+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 World-Wide Vision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다.

두리틀 공습작전

* Global AF



이세영 대위

나청준 대위

임택순 대위



옥만호 대위

신철수 대위

박재호 대위

박두원 중위

호국보훈의 달, 공군의 명웅들



유치곤 중위

이근석 대령

윤응렬 대위

6월이다. 흔히들 말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에는 나라를 위해 숨진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다. 6월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빚었던 6·25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다.

6월은 수십 년 전 학창 시절의 표어가 생각나는 달이기도 하다. '상기하자 6·25!' 가 그것이다.

6·25전쟁은 신중 속어를 낳기도 했다. '골로 간다'가 그것이었다. 6·25전쟁 이후 흔히들 '골로 간다'고 하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통했다. 한 인간의 죽음을 '골로 갔다'고 상스럽게 표현하기도 했다.

전쟁 와중에 선량한 양민들은 곤장 총칼의 위협 속에 산 속 골짜기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곤 했다. 한마디로 골짜기로 끌려가는 것은 학살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골(짜기)로 간다'는 것은 곧 '개죽음'과 같은 의미로 통용됐다.

언어는 시대를 반영한다. 그런 면에서 시대의 아픔을 담은 언어를 만나면 가슴이 아프다. 특히 이처럼 전쟁이 낳은 가슴 아픈 단어들은 더욱 그렇다.

이처럼 전쟁은 슬픔도 낳지만 '영웅'도 출산한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웅들은 누구인가.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세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100인'이나 '한국을 움직이는 50인' 같은 식으로 보도하며 현대의 영웅을 생산해내기도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정보 시대'에는 영웅을 탄생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현대 매스컴은 운동선수에게조차 '영웅'이란 칭호를 붙이는 데 인색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영웅의 대량생산 시대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대가 영웅이 빈약한 시대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영웅은 아무래도 전쟁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바친 6·25전쟁 영웅들이 있다. 물론 전쟁에서 살아남은 영웅도 있다.

그렇다면 6·25전쟁이 낳은 공군의 영웅들은 누구일까. 이 대목에서 국방부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개정판 제2권 675쪽을 한 번 보자.

"15일 08시 25분에 기지를 이륙한 세대의 F-51 전투기 제2편대는 편대장 옥만호 대위(2번기 유치곤 중위, 3번기 박재호 대위)의 선두 지휘로 평양 동쪽 상공에서 폭탄 6발을 투하하고 로켓탄 12발과 기총 2,500발로써 그 일대에 있는 포진지와 보급품 집적소 3개소를 폭파하는 한편, 평양 동쪽 16킬로미터에 있는 승호리 철교 2개의 경간을 폭파했다. 또 전투기 제1편대도 윤응열 대위의 지휘로 승호리 상공에 출격하여 폭탄 6발과 로켓탄 8발을 투하하고 건물 1동을 소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벙커 3개소를 폭파했으며 승호리 철교 2개의 경간을 완파하여 사용불능토록 만들어 놓았다."

바로 한국 공군의 영웅들이 1952년 1월 15일, 공군의 F-51 전투기 여섯대가 평양 근교의 승호리 철교를 폭파했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다. 승호리 철교 폭파는 앞서 미 제5공군이 연 500소티(Sortie)나 출격해 공격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터였다.

지금까지도 기적으로 통하고 있는 승호리 철교 폭파는 죽기를 각오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임무완수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사의 출격이 이뤄낸 성과였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은 미 공군이 제트기로도 해내지 못한 것을 프로펠러기를 몰고 성공시킨 것이다.

'승호리 철교의 영웅' 옥만호 대위는 제12대 공군참모총장까지 역임하고 향년 87세의 나이로 최근 작고했다. 그는 공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외국 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냈으니 성공한 영웅이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6·25에서는 살아남은 영웅보다는 장렬하게 공중에서 산화한 '하늘의 영웅'들이 더 많이 나왔다. 그 가운데는 고성 상공에서 유성처럼 사라졌다가 나중에 보라매의 요람인 공군사관학교 교정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 임택순 중위(전사 후 대위 추서) 같은 이들도 있지만 일본 항공학교를 졸업한 조종사들도 꽤 있었다.

1950년 7월 2일 경부국도로 출격, 시흥 상공에서 적 탱크 부대를 격파하다 장렬히 자폭한 이근석 대령(전사 후 준장 추서)의 경우는 일본군 에이스 출신이었다. 일본의 카미타니 소년 항공학교 출신인 그가 에이스였다는 것은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군기를 5대 이상 격추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아이러니컬하게 '공군 창설 7인 간부'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어제의 적'이었던 미군으로부터 일본 이다츠케 기지에서 일주일간의 훈련을 받고 인계받은 미 공군의 고물 전투기 F-51를 타고 출격했다.

원산지구 폭격에서 산화한 신철수 대위와 진남포 상공에서 전사한 나창준 대위, 간성지구에서 하늘의 넋이 된 박두원 중위 등은 일본 다치아라이 육군 비행학교 출신이었다. 이천에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한 이세영 대위도 일본군 소년 항공병 출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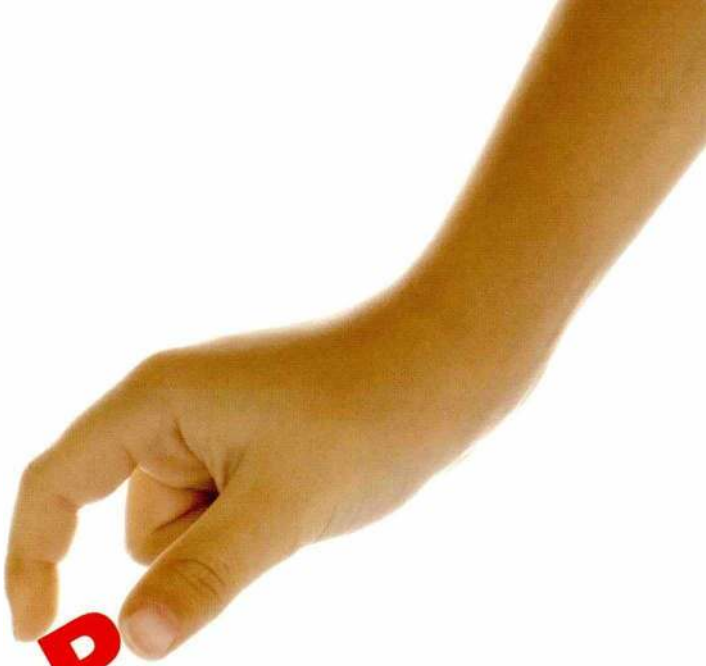
이들은 비록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서 비행술을 익혔지만 신생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젊은 청춘을 기꺼이 바친 것이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데는 출신이나 계급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6·25전쟁의 승자는 미국도 남한도 북한도 중국도 소련도 아니었다. 삼천리강산을 초토화한 3년 전쟁 후 그나마 반쪽 땅이라도 비공산권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지킨 영웅들의 희생이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들 뿐만이 아니다. 조국 산하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들은 숭하다. 그래서 정부는 전쟁이 끝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군부대에서 노병들을 초청해 군악대의 연주 아래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이 과정에서 잡음이 인 적도 있었다. 군이 행정상 편의를 위해 6·25 참전 노병에게 훈장을 택배로 배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필자의 노력으로 바로잡혀 이제는 군 초청 행사를 통해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어찌됐든 호국보훈의 달, 창공에 넋을 뿌린 이들을 포함해 호국영령들을 생각하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여미게 된다. 이 땅에 다시는 '골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의 희생은 더욱 값지다. **AF**



LEADERSHIP^P

신뢰 받는 개인, 성공하는 삶

우리 모두는 크게 성공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성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이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 역시 많은 것을 추구했고, 언젠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단히 노력했지만, 내가 바라던 성공이나 행복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나는 스티븐 코비와의 만남, 더 정확하게는 그가 저술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만나면서 막연히 개념으로 알던 성공이나 행복 등의 실체를 현실세계에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 경영학 교수이던 그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7가지 습관'이라는 간단한 면서도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자신, 당시 미국을 움직이는 25인 중의 한 명에 드는 석학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저 없이 이렇게 정리한다. '뜻을 이루는 것, 즉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 이라고, 그래서 요즈음 사람들이 나에게 '성공했느냐'고 물으면 별로 주저함 없이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하다'고 답한다. 돈이나 명예, 권력이 내게 많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자기관리 능력' 이요, 또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 이다. 물론 둘 중 한 가지만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일시적 일 뿐이다.

자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신뢰성' 을 갖춘 사람이다. 신뢰성의 핵심은 훌륭한 내적 성품과,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갖추는 일이다. 이러한 신뢰성이야말로 대인관계에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성향인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 혹은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품은 아주 훌륭한데,



자신의 일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역량은 뛰어난데, 비양심적이거나 따뜻한 성품을 갖추지 못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면 역시 그 사람은 신뢰 받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성품교육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부터는 매스컴의 발달과 부의 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역량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었고, 이러한 외적 성공만을 중시하는 풍조는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많은 서유럽의 국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지식교육보다는 사회의 질서, 도덕적인 규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 등만을 주로 가르친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성품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스티븐 코비는 7가지 습관을 통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성품과 역량을 둘 다 체계적으로 갖추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7가지 습관은, 먼저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세 가지 습관으로 신뢰성을 갖춘 다음,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는 세 가지 습관을 체득하여 신뢰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신 단련의 습관을 통해 위의 6가지 습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각계각층의 수많은 삶을 변화시킨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 도입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내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킨 원칙(신뢰) 중심의 이 리더십 교육은, 산업교육의 풍토, 인성교육에 대한 깨달음이 미미하던 그때, 많은 기업인, 정치인, 군 장성, 신부, 목사, 교수, 대학생, 중고교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뢰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월간 「공군」 독자들도 좋은 습관과 덕을 쌓아 신뢰 받는 개인이 되고 성공하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진정한 성공의 정의를 풍성한 보물을 맞이하여 고민해 보면 어떨까. **AF**



정밀교전 : 항공기와 지상군의 교량역할을 하는 공군특수전술요원

조지아 주 포트 베닝 기지에서 실시된 주 방위군 합동훈련모습.
뉴욕 주 방위군 101구조대대 소속 조셉 나폴리타노 중사가
HH-60 페이브 호크 헬기 안에서 지상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공중타격(Air Strike)”이란 용어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전장을 소재로 한 비디오 게임 “Call of Duty”를 떠올리곤 한다. 게임상에서 게이머는 적군에 대한 가상 공습을 요청하고, 성공할 경우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케네스 워커 하사(Staff Sgt. Kenneth Walker)에게 있어서 공중타격작전에 이러한 가상이란 없다. 공중타격요청은 현실에서 그가 수행하는 본질적인 임무이기 때문이다. 워커 하사는 워싱턴 주, 머레이 기지에 소재한 미 공군 주방위군(Air National Guard) 예하 116 항공지원작전 대대의 전술항공통제관(Tactical Air Control Party)이다. 전술항공통제관(이하, TACP)은 지상군에게 항공기 투입 및 작전 능력에 대해 통보하며, 전투 항공기를 인도하여 적군 표적 타격을 지원하는 전문 요원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상군과 항공기를 연결하는 연락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커 하사가 말한다. “우리는 육군 보병과 통신을 유지하고, 항공기 조종사들과 협조하여 필요한 곳에 폭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얼핏 들으면, 피상적인 통신 임무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TACP란 고강도 훈련과 기술 습득을 통해, 민첩한 움직임과 판단력, 그리고 멀티태스킹 능력을 겸비한 공군 요원을 지칭한다. 검은색 베레모의 주인인 TACP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기능 훈련 외에 전투 생존 및 기본 공수 훈련을 통과해야 하고, 또한 고급 특수 전술훈련 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완수하는 데는 32주간의 혹독한 땀과 노력의 시간이 요구된다.

“훈련을 통해 익혀야 할 기술이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워커 하사가 말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파병이나, 실전에 참여하지 않는 전술항공통제관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유지하기 위해 연습에 참여한다. 최근 실시된 연습훈련에서 116 항공지원작전 대대 소속 TACP들은 육군 보병 부대와 협조 및 A-10 썬더볼트-II(A-10 Thunderbolt II), F-18 호넷 전투기(F-18 Hornets), HH-60 페이브 호크 헬기(HH-60 Pave Hawk helicopters) 등 다양한 항공기에 근접항공원

작전을 요청하는 훈련을 수행하였다.

“실제 항공기와 실무장을 사용하여 표적을 타격하는 실전적 훈련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116 항공지원작전 대대 벤자민 산티아고 중사(Tech. Sgt. Benjamin Santiago)의 말이다. “시뮬레이션 훈련도 도움이 되긴 하만, 실탄 사용 훈련에 미치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습훈련이 TACP들에게 단지 경험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을 통해 그들은 TACP의 자격을 유지한다.

“저희는 자격 유지를 위해, 90일마다 항공 통제 임무를 180일 주기로 무장 투하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티아고 중사가 설명했다. “훈련을 통해 임무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주 방위군 소속으로서, 116 항공지원작전 대대 장병들은 평시 민간인으로서 생업과, 군사 임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희 주 방위군에게도 현역 군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무 달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과 달리 파트타임으로 제한된 시간만 군사임무에 임하기 때문에, 절반의 시간에 같은 수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워커 하사의 말이다.

주 방위군 역시 미군의 작전지원을 위해 해외에 파병되기도 하며, 아프가니스탄 같은 작전지역의 경우, 전술항공통제 임무의 소요가 매우 높아, 116 항공지원작전 대대의 TACP(전술항공통제관)들이 주기적으로 파병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저희 대대인원 중에는 곧 아프간에 파병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자격 유지를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중사가 말한다. “이러한 훈련이 작전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들의 말은 모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2009년, 아프가니스탄 쿠나르 지방에 6개월간 파병된 워커 하사의 팀은 3인 1조로 총 300,000파운드 이상의 폭탄 투하를 요청하는 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당시, 매일 하루 한건의 전투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워커 하사가 회상했다. “가끔은 하루에 두세 번의 전투를 치른 적도 있습니다.”

워커 하사는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파병 전에 받은 혹독하고 심층적인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진흙탕에서 강행군을 계속하고, 빗속에서 지붕 없이 잠을 청하며, 표적에 폭탄과 무장을 투하하는 훈련의 연속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이다.

“실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땐,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본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고된 훈련 과정을 겪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것을, 그리고 반복된 훈련없이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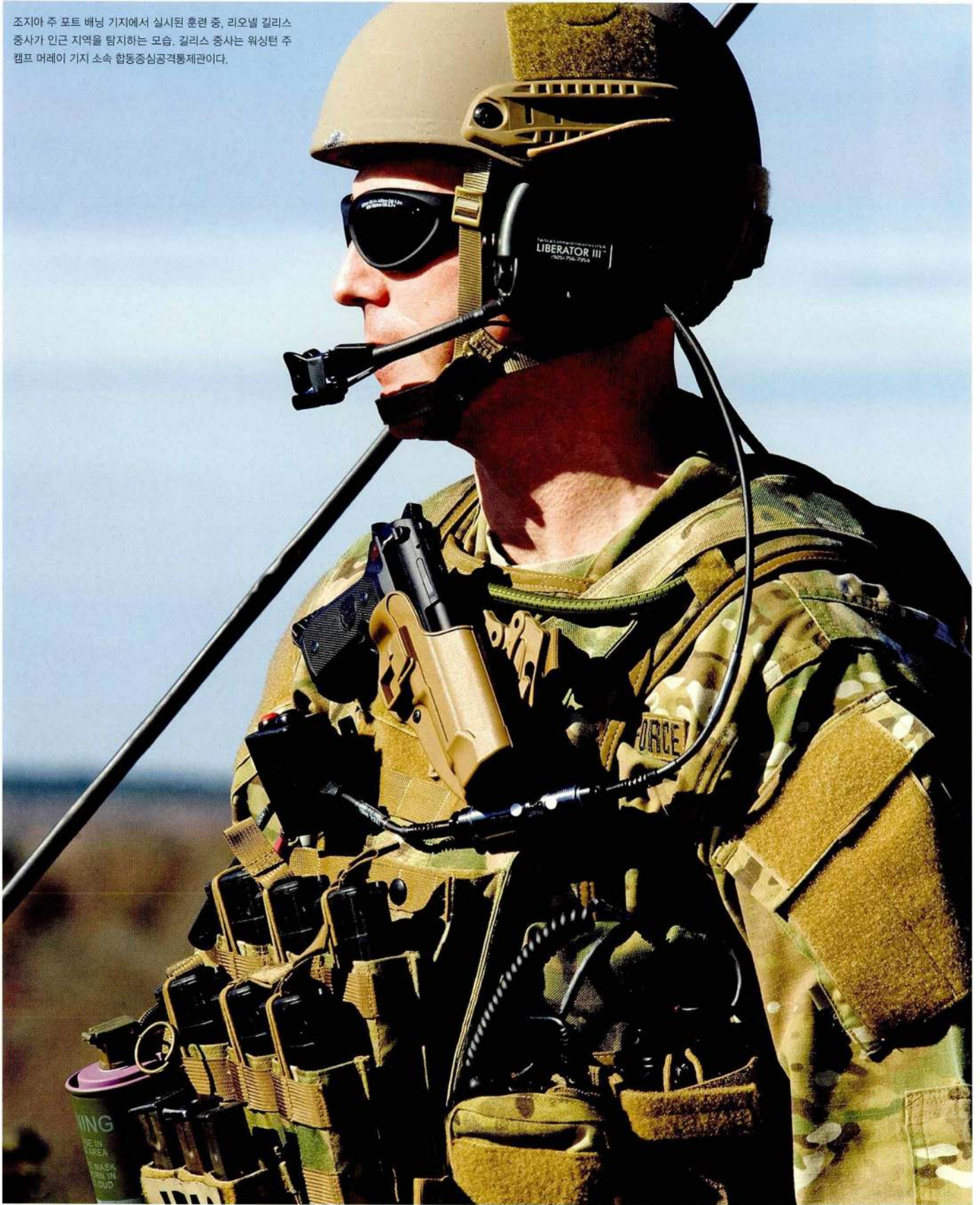
TACP가 되려면, 다방면에서 여러 역할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공군 소속의 부대지만, 주로 육군 또는 타군과 함께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요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임무는 합동성이란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산티아고 중사가 말한다. “우리는 타군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주, 타운센드 기지에서 실시된 훈련 중, 벤자민 해일 병장, 코리 웰튼 하사 그리고 제이콥 토거슨 하사가 A-10 썬더볼트 항공기 조종사와 대화하는 모습

조지아 주 포트 베닝 기지에서 실시된 훈련 중, 리오넬 길리스 중사가 인근 지역을 탐지하는 모습. 길리스 중사는 워싱턴 주 캠프 머레이 기지 소속 합동중심공격통제관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요원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라 할 수 있다. 특수 전술 부대로서, TACP 요원들 간에는 “서로 믿고 맡기기” 끈끈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임무의 특성상 생길 결과라 할 수 있다.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산티아고 중사가 말한다. “또한 임무 특성상 뿔뿔이 흩어져 작전을 수행 하더라도,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랄까, 동질감이 생기 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관계는 마치 정신없고, 문제 많은 가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CP들의 임무와 동료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워커 하사는 “다양하고 긴밀한 관계들이 TACP의 매력이며, 본인 또한 이것이 TACP를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이곳에서 긴밀하고, 소중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며, 군사 임무에서 떠나 있을 땐 이러한 동료들이 많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전술항공통제관, 그들은 비록 “Call of Duty” 같은 비디오 게임은 잘 못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밀타격 요청을 통해 동료병사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는 능통한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F**



A-10 항공기 썬더볼트가 조지아 주 캠프 터운센드 기지에서 실시된 훈련 중 상공을 지나는 모습



킬리스 중사가 주 방위군 분기별 합동 훈련 도중, 무전기를 체크하는 모습



벤자민 해일 병장이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 훈련 지역을 탐지하는 모습. 해일 병장은 워싱턴 주 캠프 머레이 기지 소속 합동중심공격통제관이다.

세계주요항공전사 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두리틀 공습작전



〈Global AF〉가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세계 주요 항공전사 시리즈'라는 제목의 이 연재는 역사에 빛날 항공전사들을 리뷰해 봄으로써, 20세기에 처음 등장한 항공력이 어떻게 성장·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살펴보는 코너가 될 것입니다. 지난 호까지 '주요 스텔스전투기 소개'를 재미있게 연재해 주셨던 양욱 Intel-Edge 대표가 독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펜을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항공모함 호넷으로부터 이륙하고 있는 B-25 폭격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미 해군 태평양함대는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미국은 군함 9척을 잃고 350여 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으며, 무려 3천5백여 명이 전사했다. 선전포고도 없는 갑작스런 기습에 미국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피해도 피해거리와 기습으로 참담히 패배한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려야만 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12월 21일, 일본 본토를 공습할 것을 함대에 지시했다.

그러나 미군 수뇌부는 보복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미군에게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을 타격하고 귀환할 보복 전력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이었다. 미 공군(당시는 육군항공대)은 장거리 폭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전반경 내에서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기지가 없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함재기가 있었지만, 함재기 자체의 작전반경이 짧아 일본 본토를 타격하기 어려웠다.



항공모함 호넷의 갑판에는 무려 16대의 B-25가 탑재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항공모함에 장거리 폭격기를 태워 폭격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언뜻 쉬워 보이는 임무였지만, 세심한 업무디테일과 뛰어난 조종술을 요구하는 과제였다. 이 작전의 책임자로 전쟁 이전에 저명한 민간조종사이자 항공공학 엔지니어로 활약하던 제임스 H. 두리틀 중령이 선정됐다.

한편 작전에 나설 기종선정도 커다란 문제였다. 공습을 위해서 2천 파운드(910kg) 폭탄 한 발을 탑재하고 4,400km를 비행할 수 있는 폭격기가 요구됐다. B-26 머라우터, B-18 볼로, B-23 드래곤, B-25 미첼 등의 기종이 후보로 거론됐다. 그 중에 B-26은 이륙거리가 너무 길어 항모에서 이륙하기 힘들어 배제되었고, B-18과 B-23은 주익¹⁾이 너무 커서 항모에 적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결국 두리틀 중령은 B-25를 작전기종으로 선정했다. 1942년 2월 3일 B-25 2대가 미 해군의 항공모함 CV-8 호넷에 실려 이륙시범을 실시했는데, 어려움 없이 이륙함으로써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초 계획에서는 B-25 20대가 공습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예비분을 고려하여 모두 24대가 개조됐다. 그리고 1942년 3월 1일부터 플로리다의 에글린 기지에서 조종사들에 대한 훈련이 시작됐다. 3주간 계속된 집중훈련에서 조종사들은 항모이륙, 야간저고도비행, 해상항법, 저고도 폭격 등 임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연마했다. 치열한 훈련과정에서 폭격기 2대가 손상을 입어 임무에 투입될 수 없게 됐다.

3월 25일이 되자 22대의 폭격기와 조종사 및 승무원들은 플로리다를 떠나 이틀 만에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 3월 31일, 폭격기 16대가 항모에 기체를 실기 위하여 알라메다 해군기지에 도착했다. 적재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5대만을 실자는 해군과 실량이 끝에 나머지 16번째 폭격기를 실음으로써 드디어 작전은 시작됐다.

대양으로 나서다

1942년 4월 2일, B-25 폭격기 16대를 실은 항모 호넷은 드디어 출항했다. 항모에 탑승한 두리틀 폭격대는 정비요원 5명을 포함하여 71명의 장교와 130명의 부사관 및 병사로 구성된 대규모 부대였다. 각 폭격기는 2,000파운드 폭탄 1발 대신에 500파운드(225kg) 폭탄 4발을 탑재했다. 64발의 폭탄 가운데 5발에는 일본 정부가 전쟁 전에 미군에게 수여한 우호훈장이 달려 있었다.

폭격기는 이륙중량을 줄이기 위하여 철저한 중량감소작업을 거쳤다. 후방 기종은 모크업²⁾(Mock-up)만을 장착했고, 하부 기종터렛은 아예 통째로 제거했다. 기체 하부의 방탄판도 제거했고, 심지어는 장거리 무전기까지 제거했다. 남아 있는 자체 무장이라고는 상부 기종터렛의 50구경 기관총 2정과 기수에 장착된 30구경 기관총뿐이었다.

태평양으로 나아간 호넷 함대는 4월 13일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합류하여 이동을 계속했다.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들은 일본 해군의 함재기의 공격에 대비하여 항공엄호임무를 수행했다. 그 외, 순양함 4척과 구축함 8척, 그리고 급유지원함 2척이 함대를 이루어 대양항단임무를 지원했다. 그리고 4월 17일 느린 속도의 급유지원함 2척은 함대에 마지막 보급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적진으로 들어갈 일만이 남았다.

1942년 4월 18일 07시 38분, 일본 본토로부터 1,200km쯤 떨어진 지점에서 공습부대는 일본의 순시정 니토마루에게 발각됐다. 함대의 구축함 내쉬빌이 포격으로 적 순시정을 격침시켰지만, 미군의 공격사실은 이미 일본에게 알려진 터였다.

결단의 순간

함대의 위치가 발각된 것을 놓고 두리틀 중령과 미처 대령은 고민에 빠졌다. 예정 작전시간보다 10시간이나 빨랐고 310km를 더 비행해야 했지만, 이제 되돌

1) 비행기 동체의 좌우로 뻗은 날개

2) 비행기나 자동차 따위를 개발할 때에, 각 부분의 배치를 보다 실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제작하는 실물 크기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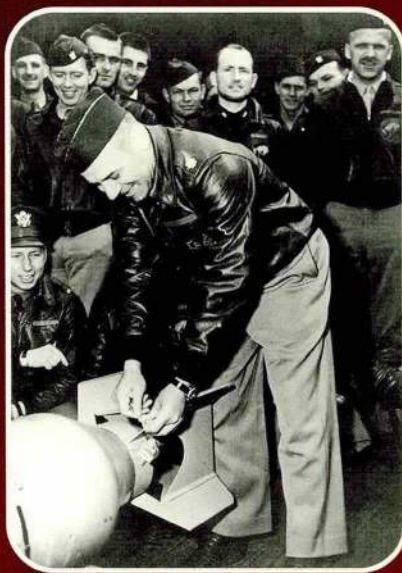
일본본토에 대한 공습임무에 선정된 기종은 작은 크기에 날렵한 성능을 갖춘 B-25 미첼 폭격기였다.



B-25 폭격기는 항공모함에서 이륙을 위해 기종이나 방탄판 등이 제거되는 등 본격적인 '다이어트' 작업을 거쳤다.



비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체에는 최소한의 탄약과 폭탄이 실렸다.



두리틀 폭격대는 일본정부가 보낸 우호훈장을 폭탄에 달아서 돌려보냈다.



무려 140m 정도인 짧은 갑판에서 1.5톤의 폭격기가 이륙하고 있다.



갑자기 도쿄 상공에 나타난 두리틀 부대의 공습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다.



항모를 이륙한 공습부대는 6시간을 비행하여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에 성공하였다.



두리틀 폭격대원 80명은 3주간의 집중훈련을 거친 후에 임무에 투입됐다.



두리를 폭격대는 대부분 중국으로 탈출해 복귀했지만 3명이 전사하고, 8명이 포로로 잡혔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두리를 중령은 의화명예훈장과 함께 2계급 특진하여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1946년 중장으로 전역했다.

릴 길은 없었다. 공습대장인 두리틀이 가장 먼저 이륙했다. 기체를 가장 앞쪽에 주기했기 때문에, 두리틀은 142m라는 짧은 거리에서 1.5톤짜리 폭격기를 이륙 시켰다. 조종사 전원이 항모에서 직접 이륙을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모든 기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성공적으로 이륙에 성공했다. 공습부대의 이륙은 08시 20분에 시작되어 09시 19분에 종료됐다.

각각 5명의 승무원들을 태운 B-25 폭격기들은 2대 혹은 4대의 편대로 나눠 일본군 레이더를 피해 초저공으로 비행했다. 약 6시간의 비행 후, 드디어 일본 본토가 두리틀 폭격대의 눈앞에 들어왔다. 이 시각은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했다. 긴장감이 없던 일본군은 16대의 폭격기가 침투한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

B-25 폭격기들은 차례차례 목표를 찾아 폭격을 시작했다. 조종사들은 정확한 타격을 위해 기체를 1,500피트까지 낮춰 폭격을 실시했다. 도쿄의 군사시설 및 산업시설 10개소, 요코하마 2개소, 요코스카, 나고야, 고베, 오사카 등 각 1개소가 두리틀 폭격대의 폭격을 받았다. 공습과정에서 일본군 제로 전투기의 요격은 거의 없었지만, 지상에서 대공포화의 격렬한 반격이 이어졌다. 놀랍게도 폭격지역에서 적군에 피격되어 추락한 기체는 단 한 대도 없었다.

폭격을 성공적으로 마친 폭격기들은 16대 중 15대가 중국을 향해 13시간을 비행하면서 착륙할 장소를 찾았다. 원래 폭격기들은 주저우 공항에 착륙하기



Doolittle Raid on Japan, April 18, 1942

두리틀 공습작전 도해

로 되어 있었지만, 시계가 좋지 못한 탓에 대부분의 기체를 버리고 낙하하거나 동체착륙을 시켜야만 했다. 한편 연료량이 극심히 부족했던 폭격기 1대는 중국 대신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 착륙했는데, 이 기체만은 무사히 착륙했다.

충격과 공포, 태평양 전쟁과 승리의 시발점

두리틀 공습은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 과감한 항공작전이었다. 무려 4,170km를 비행하고, 폭격을 수행하면서 단 한 대의 전력도 손실되지 않았다. 두리틀 공습은 B-25 폭격기가 수행한 최장거리작전으로 기록된다. 두리틀 공습은 미국에게는 태평양 전선에서 최초의 승리였고, 미국민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그러나 폭격피해평가만으로 판단하자면 두리틀 공습의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 수도권의 목표를 가운데 8개의 주요요적과 5개의 부수요적만을 타격했을 뿐이고, 폭격대상 역시 손쉽게 복구가 가능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두리틀 공습은 적군 수뇌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뒤집어 놓았다. 본토가 공격당할 리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대본영³⁾은 충격에 휩싸였다. 두리틀 공습은 일본군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본토가 안전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함으로써, 전력의 상당부분을 본토방위에 묶어놓았다. 두리틀의 기습작전으로 인해 적 수뇌부는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셈이다. 충격과 공포를 통해 태평양전쟁 승리의 시발점이 된 작전, 그것은 바로 두리틀 공습작전이었다. AF

3) 육군과 해군을 지배하에 두는 전시의 천황 직속의 최고 통수 기관.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전쟁 이전 저명한 민간조종사이자 항공 엔지니어로 활약한 제임스 H. 두리틀 중령이었다.

월간 「공군」의 400호 표지를 당신 손으로 꾸며주세요!

월간 「공군」 400호 특집호 표지 제작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밑그림과 설명 형태로 아이디어만 보내주셔도 좋고,
직접 디자인을 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채택된 표지는 월간 「공군」 400호에 실리게 되며,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주제는 '400'과 '공군'을 연관지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환영입니다.

참여기한 : 8월 31일(수)

참여방법 : 표지규격; 220*280mm (JPG & PSD)
사연 공모는 엽서 혹은 인터넷 제출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호 공군지 담당자 앞

E-mail :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ail(인트라넷)

당첨발표 : 월간 「공군」 400호
(2011년 10월호)

월간 「공군」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월간 「공군」 400호 특집에 실을 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공모합니다.

월간 「공군」과 관련된 사연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월간 「공군」 400호에
실림과 동시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공군 IN

공군, 대한민국을 수호한 결정적 힘!

대한민국 공군에이스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6·25전쟁, 역전의 전투기들

* 기획특집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 Pioneers up above

* 포토프레임@AF

* AIR FORCE MONTHLY

절름발이 강아지를 산 아이

* 생각하는 그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용감한 국군이 적을 격퇴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라'는 언론 매체의 보도와 달리 전선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군사적으로 따져보면, 북한군이 국군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었다. 기습으로 선공을 가한 전략적 이점을 점하고 있던 북한은 남침 직전에 병력으로는 2배, 화력까지 계량화한 전력으로는 5배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참담했던 6·25전쟁의 초기 모습을 상징하는 전차만 해도 북한은 240여 대를 넘게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군은 단 한 대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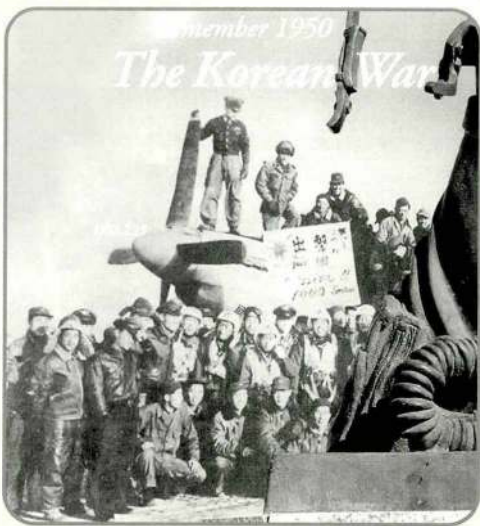
하지만 공군력에서의 엄청난 격차에 비하면 오히려 이는 양호한 편이다.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군용기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반면 북한군은 전투기, 공격기를 포함한 200여 기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육군은 전차 대신에 성능이 미흡한 대전차무기라도 그나마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 대의 전투기도 없던 공군은 단 순히 수적으로 10대 1의 격차라고 할 수 있는 상황마저 못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조총에 당한 조선군은 활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개전 직전의 대한민국 공군보다는 형편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군은 최선을 다했다. 6·25 전쟁 초기,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일방적으로 패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5배가 넘는 전력으로 기습을 가한 북한군이 자동차로 1~2시간 거리인 38선에서 서울까지 진격하는데 3일이 나 걸렸다는 것은 국군의 분투가 대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심각하게 붕괴됐던 곳은 7사단이 담당한 의정부 축선밖에 없었고, 여타 전선은 국군이 나름대로 선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한 외중에 대한민국 공군도 손으로 폭탄을 던지는 분전으로 투혼을 발휘했다.

그런데 남·북간 전력 부문 중 공군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먼저 북한을 제압한 군은 바로 공군이었다. 미 공군은 주한 미국인의 소개(疏開)를 위해 전쟁 다음 날, 가장 빨리 한반도에 등장했다. 세계 최강의 미 공군이 참전하자, 하늘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전쟁 발발 2일도 되지 않아 6·25전쟁사에서 북한 공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 내내 공군력이 차지한 의미가 얼마나

1950년, 한반도의 하늘은... ①

공군, 대한민국을 수호한 결정적 힘!



... 이처럼 한순간도
제공권을 내주지 않고
하늘을 장악한 UN 공군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다대했는지 알려주는 서곡이었다.

정찰용도로만 사용했던 비행기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전투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변화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했다. 하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확률이 커지게 되면서, '제공권'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잉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은 하나의 테제가 되었다. 전쟁 초기 전격전(Blitzkrieg)을 선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독일군의 전술도 공군력이 없었으면 구현하기 힘들었고, 진주만을 초토화시킨 일본군의 주력도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이었다. 또한 대대적인 전략폭격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중심이었다. 의 전쟁 수행의지를 좌절시켜 전쟁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원동력도 바로 공군력이었다. 공군력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지만, 공군력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6·25전쟁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전쟁이었다. 7월 초에 미 육군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상황은 암담했다. 결국 낙동강까지 밀려나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에야 적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만일, 이 당시 제공권을 아군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9월 이전에 부산을 북한군이 점령했을 가능성이 컸다. 미 공군이 연일 머리 위로 날아다니며 공격을 가하자 북한군은 벌건 대낮에 진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를 들면, 남침의 선봉장이었던 북한의 전차들을 가장 많이 격파한 것도 공군이었다. 또한 남진할수록 길어지는 보급로마저 공군의 공습으로 툭하면 차단됐다. 결국 북한군은 궁여지책으로 심야에 36만의 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보급품을 20~30km씩 릴레이로 보급품을 전선에 보내야 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전쟁 초기의 전선은 낙동강가에 구축됐지만, 후방의 평양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을 만큼 한반도 전체를 작전 지역으로 삼았던 미 공군의 활약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북한의 전진을 막아낸 최고의 수단이었다.

더불어 중공군의 참전 이후, 휴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장악한 제공권은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던 커다란 힘이었다. 병력에서 앞섰던 공산군을 저지하던 수단은 아군의 강력한 화력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군의 역할은 컸다. 대부분의 지형이 산악인 한반도에서 포병은 기동성의 제약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화력지원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적에게 포위된 위험한 순간에서도 아군이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 쏘고 제때 물자를 보급했던 공군의 지원덕분이었다. 이처럼 한순간도 제공권을 내주지 않았던 공군력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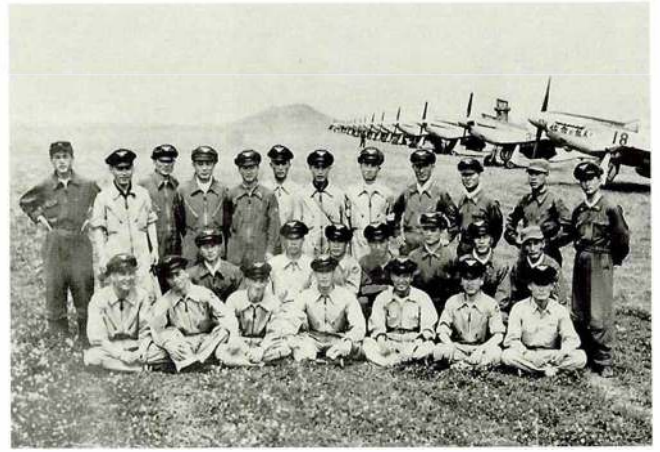
맨 주먹으로 일어난 대한민국 공군도 60여 년 전, 이 땅에서 있었던 엄청난 혼란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비록 그 당시에는 필연적으로 대미의존적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대한민국 공군은 멋지게 6·25 전사의 한 부분을 장식했다.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스러웠던 활동상과 하늘을 누볐던 주인공들에 관한 짧은 이야기이다. **AF**

1950년, 한반도의 하늘은... ②

대한민국 공군에이스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무장 출격하는 F-51 전투기



창군 초기, 대한민국 공군인들의 능률한 모습

잘 알다시피 공군 E-sports팀의 이름은 에이스(Ace-Airforce Challenge E-sports)이다. 하지만 에이스(Ace)는 조종사라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오랜 염원이 담긴 단어이기도 하다. 사전적으로 에이스는 공대공 전투에서 5대 이상의 적기를 격추시킨 조종사를 의미한다. 흔히, 도그파이팅(Dog Fighting)이라 불리는 근접 공중전으로 공대공 전투를 벌이던 시기에는 개인의 조종 능력이 승패에 지대한 역할을 차지했고, 에이스(Ace)는 곧 조종술이 뛰어난 조종사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전쟁영화에서 자주 묘사됐던 리히토펜(Manfred von Richthofen) 같은 슈퍼 에이스들의 활약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공전사에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에 아직까지 원론적 의미의 에이스는 없다. 우선, 6·25전쟁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부대는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다. 또한 6·25전쟁 당시에도 대한민국 공군은 공대공 전투가 아니라, 대지공격 임무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UN군의 신속한 참전으로 초전에 북한 공군이 괴멸되면서 남·북한 공군간의 대결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뛰어난 조종사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라 할 수 있다. MiG-15가 등장했을 때는 대한민국 공군에는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제트전투기가 아직 도입되기 이전이어서 정면으로 공대공 전투를 벌이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화 "Flight of the Intruder(1991)"의 "전투기 조종사는 영화를 만들고, 폭격기 조종사는 역사를 만든다!"는 유명한 대사처럼, 언뜻 화려해 보이는 공대공 전투보다는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임무가 사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폭파된 승호리 철교

실 공군에게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공대공 전투는 대지공격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나 적의 공격을 방어해 내기 위한 요격 행위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항공전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인 대지공격 작전을 성공시켰던 대한민국 공군은 진정한 에이스들의 보고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사례들은 대한민국 공군 에이스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이다.

영원히 기록될 전설,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

1952년, 현재의 휴전선 일대에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전쟁은 지루한 소모전으로 바뀌었다. 원활한 보급은 전선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반대로 상대방의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당연히 UN 공군의 작전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공산군 측의 주요보급로와 물자 집적장소에 연일 UN군의 대대적인 폭격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공산군 측은 평양 동쪽 부근의 남강을 가로지르는 승호리 철교를 통해, 물자를 유유히 보급받았다.

개전 이래로 보급로 확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던 북한은 승호리 철교가 전쟁 초기에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자, 앞뒤가 가파른 절벽에 둘러싸여 대공 방어에 적합한 하류 쪽에 새 철교를 건설하고, 항공기의 예상 공격진입로를 따라 촘촘히 대공포를 배치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미 공군은 무려 500여 소티(Sortie)가 넘는 출격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교를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만 더 키웠다. 저공으로 침투하면 대공포에 격추당하기 일췌였고, 그렇다고 B-29 같은 중폭격기들을 이용한 고고도 수평 폭격으로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작전이 실패하자, 미 제5공군 사령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대한민국 공군에 임무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단독작전권을 부여받은 지 얼마 안 된 대한민국 공군이 이 작전을 성공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슴 벅찬 임무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공군은 곧바로 작전에 돌입했다. 1952년 1월 12일 오전 7시 40분, 6대의 제10전투비행단 소속의 F-51 전투기 편대가 강릉기지를 박차고 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목표까지 다가가 웅감하게 폭탄을 투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두 차례의 공격은 모두 실패했다.

미군들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반면,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사들은 이를 치욕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실패에 스스로 분노했다. 밤새 원인을 분석한 조종사들은 지금까지 미군으로부터 교육받은 전술이 승호리 철교 공격에는 부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는 공격 고도를 더욱 낮춰 1,500피트의 초저공까지 하강한 후, 폭탄을 투하한다는 새로운 해법을 도출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한 위험한 선택이었다.

1월 15일, 세 번째 출격에 나선 6대의 F-51들은 눈앞에 작렬하는 대공포탄을 가로질러 철교를 향해 차례대로 급강하했다. 자칫하면 앞에서 투하한 폭탄에 의해 뒤따르던 후속 공격기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큼, 위험천만한 고도에서 펼쳐진 작전이었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차례대로 폭탄을 투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고, 수백 차례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버틴 승호리 철교는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감행된 폭격에 의해 다리는 완전히 파괴가 됐다. 이 믿기지 않을 기적 같은 전과를 기지에 보고했지만, 소식을 처음 접한 미군은 이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한 작전 성공을 입증하는 정찰기의 사진이 입수되자 그들은 곧 경악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놀라운 대한민국 공군에 대한 존경으로 변했다. 이처럼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룬 승호리 철교 폭격작전은 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이어져오고 있다.

대국기가 보인다! - 351고지 상공의 대한민국 공군

1952년이 지나서면서부터 어느덧 대한민국의 조종사들은 여타 UN군 조종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량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보유한 항공기는 그리 좋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투기를 인수하고 내실을 다져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지만, 한반도 하늘의 주역은 제트기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주력기인 F-51은 주로 대지공격 임무에 투입되었다. 특히 강릉에 주둔한 제10전투비행단(1953.2.15.)은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동부전선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국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CAS : Close Air Support)을 펼쳤다.

1951년 5월, 실패로 막을 내린 중공군의 6차 공세 이후 전쟁은 소강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곧 휴전 시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고지전으로 급격



6·25당시 강릉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전대



351고지 위치

히 변모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남북을 급박하게 오가며 펼쳐졌던 기동전이나 대공세는 어느덧 사라졌고, 좁고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많은 병력과 화력이 집결돼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혈전이 벌어지고는 했다.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처럼 공산군 측은 야간에 병력으로 밀어붙였고, 아군은 주간에 강력한 화력으로 맞섰다. 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살을 맞대고 싸우는 고지전에서는 화력에 의한 지원은 아군의 피해를 동반하기 쉬웠기 때문에 병력이 많은 공산군 측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정밀유도무기가 없었던 당시에 이러한 포격의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늘에서의 폭격이었다. 근접항공지원작전 수행 시, 아군 항공기를 유도하는 전방항공통제기가 제대로만 통제한다면 지상군 지원에 포격보다는 공습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휴전을 앞둔 1953년 3월, 동부전선의 351고지에서 벌어진 전투는 바로 이러한 항공지원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경우였다.

금강산 동남쪽에 위치한 351고지는 북서쪽으로 월비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월비산을 넘어서면 금강산의 동쪽으로 고성 평평한 지대가 펼쳐진다. 반면, 351고지의 남쪽으로는 동해 해안가를 제외한다면 높은 봉우리들이 연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공산군에게 빼앗길 시에는 우리측을 뒤흔들 수 있는 작전적 거점을 내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방어를 위해, 북한은 공격을 위해 반드시 이곳을 차지해야만 했다. 당연히 연일 피비린내 나는 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산군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피아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아군의 이점인 화력지원이 매우 힘들었다. 연일 이어진 공산군에 공세로 고지가 피탈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대한민국 공군이 전면으로 나섰다. 강릉 기지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단은 위기에 몰린 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F-51 전투기를 쉴 새 없이 교대로 투입했다.

단순한 고지공습이라면 크게 어려운 임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작전의 주안점은 피아를 정확히 구별하여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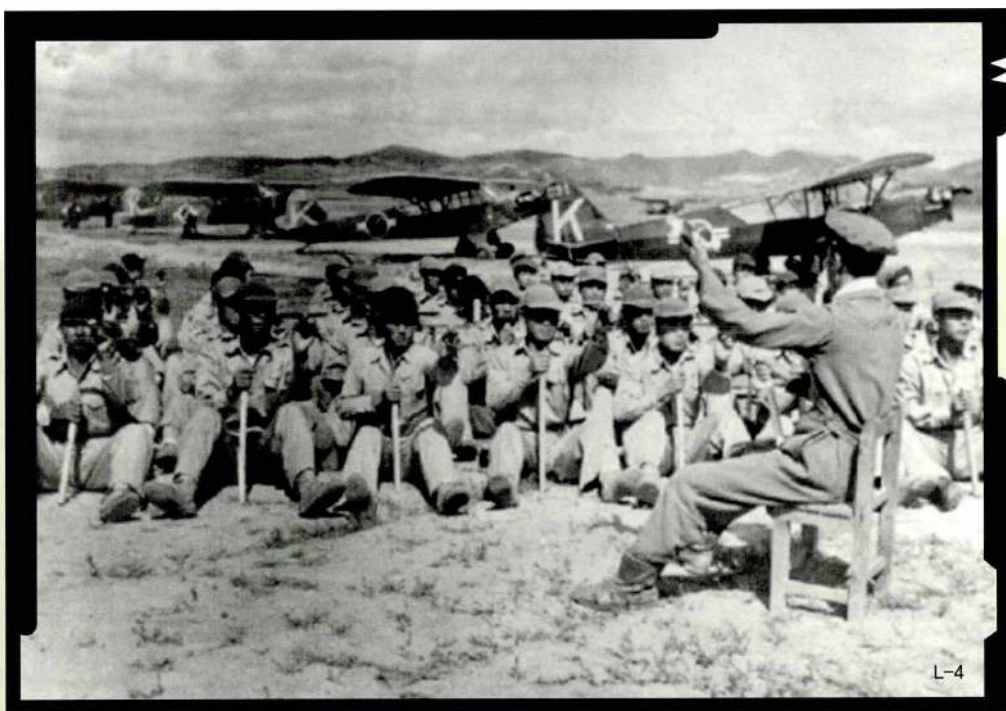
을 가하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위험을 무릅쓴 저공비행이 요구됐으며, 더불어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전방항공통제기의 역할이 막중했다. 작전수립부터 실행까지 대한민국 공군 단독으로 진행된 351고지 지원 작전을 위해 미 공군에서 파견 나온 T-6 전방항공통제기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탑승해 정확한 공격목표를 지정했다. 이렇게 공격목표를 유도 받고, F-51 전투기 조종사들도 아군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피아의 식별이 육안으로 가능한 위치까지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위험을 감수했다. 그 결과 아군 지상군은 오히려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고, 반면 공산군은 커다란 손실을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투 과정은 7월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다. 기체에 그려진 태극기가 뚜렷이 보일 정도로 낮게 내려와 지원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활약은 고립된 351고지에서 악전고투하며 방어전에 임하던 지상군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비록 휴전 직전 단행된 공산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고지가 피탈되면서 치열했던 전투가 막을 내렸지만, 수개월간 지속된 351고지 지원 작전은 대한민국 공군의 모범적인 지상군 지원 사례가 되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한다면, 이 작전은 앞으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6·25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두어 걸음 건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걸음마를 배우던 시기였다. 가진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공군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승호리 철교 폭격이나 351고지 지원 작전은 바로 공군 선배들의 불굴의 투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 UN군과 함께 실시한 평양대폭격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작전은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 영원히 자랑스럽게 남을 전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기적적인 일이라기보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공군 선배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든 아름다운 열매 그 자체였다. **AF**

1950년, 한반도의 하늘은... ③

6·25전쟁, 역전의 전투기들



사상 처음으로 제트기 간의 공중전이 벌어졌던 6·25전쟁은 전투기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그렇다고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날렵한 제트기들의 공중전이 즉시 벌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항공전처럼 폭탄을 직접 손으로 투하하는 모습까지도 연출되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한반도의 하늘은 최신에 전투기들의 경연장이 되었을 만큼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다. 이는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전투기들이 한반도의 하늘에 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래에 소개할 전투기들은 6·25전쟁 기간 중에 등장해 커다란 획을 남긴 하늘의 주역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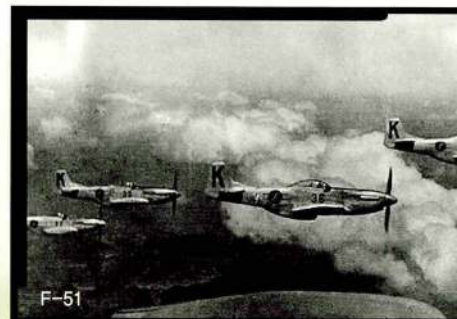
너무나 단출했던 시작, L-4/L-5 연락기(대한민국 공군)

연락기(Liaison)는 통신 및 감시 수단의 발달로 요즘은 그 역할이 감소한 경량 항공기이다. L-4/L-5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했던 기종이었다.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 7사단으로부터

10대의 L-4를 인수하게 됐다. 이는 우리가 보유하게 된 최초의 항공 전력이었다. 이후, 후방작전에 투입한 결과 성능이 부족하다고 분석돼 이보다 고성능인 10대의 L-5가 1948년 말까지 추가 도입되었다. L-4/L-5는 이착륙거리가 짧고 정비가 용이하여 운용이 편리한 장점은 있었다. 하지만 무장이 없어 전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경량항공기들은 후방식의 탑승자들이 손으로 폭탄을 던지는 방법으로 남침하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출동했다. 이처럼 L-4/L-5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불비한 여건을 탓하지 않고, 용감하게 전선으로 날아가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이었다.

자주국방으로의 첫 걸음, T-6 연습기(대한민국 공군)

T-6는 전쟁 발발 당시에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했던 최고의 항공기였다. 20여 대의 L-4/L-5 연락기만으로 영공을 방위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미국



에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우리의 비행기는 우리의 힘으로 구입하자”는 구호 아래 범국민적인 애국기 헌납운동이 전개됐다. 이에 캐나다로부터 10대의 항공기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T-6였다. 1950년 5월 14일, T-6는 여의도비행장에서 열린 도입식에서 건국기(建國機)로 명명됐을 만큼 온 국민을 감격하게 만들었고, 대한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이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전투기가 아닌 훈련기였다.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T-6를 전선에 투입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를 응급 개조 후, 병기창에서 제작한 국산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했다. 전투기 도입 이후, T-6는 정찰 및 연락기 임무와 함께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 1962년까지 사용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기틀을 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침략의 선봉, YAK-9 전투기(북한 공군)

안타까운 일이지만 6·25 개전 당시, 우리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반면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은 자료의 차이는 있지만 전투기를 포함한 220여 대의 다양한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전차부대에게 저승사자 노릇을 했던 IL-10 공격기도 70여 대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전 초기 북한 공군의 주력은 단연 100여 대의 YAK-9이었다. YAK-9은 제트기의 등장 이후 왕좌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했던 프로펠러기 전투기 중 하나였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은 한 대의 전투기조차 보유하지 못했다. 만약 전쟁 초기 북한군 기갑부대와 공군이 수세에 몰린 국군을 협공했다면, 아마도 전쟁은 많이 힘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북한군은 이런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전 초 북한 공군이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북한군 조종사들의 기량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불행 중 다행히 아닐 수 없다.

감격스런 출발, F-51 mustang(대한민국 공군)

6·25전쟁 개전 당시, 미국은 전투기의 공급을 전격 결정한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공군은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많지 않았다. 일단 급한 대로 10명의 조종사들이 선발됐다. 6월 26일, 선발된 조종사들은 미 극동공군이 재고로 보관하던 F-51을 인수하기 위해 일본 이다즈께(板付) 기지에 급파된다. 워낙 급박한 본국의 전황 탓에 조종사들은 불과 4일간의 짧은 훈련을 받았다. 7월 2일, 조종사들은 대한해협을 건너 대구기지에 도착한 후, 그 다음날부터 출격을 감행했다. F-51은 제트기 시대의 도래 이후, 대지공격기로 임무를 전환한 상태였다. 그러나 F-51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투기로 통칭될 만큼 프로펠러 전투기의 최고 명품이어서 북한이 보유한 YAK-9을 능히 상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이때는 북한 공군이 괴멸된 상태여서 남·북한 공군간의 공중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후 F-51은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증강돼 대한민국 공군이 전쟁 중 이룬 전설의 대부분을 써내려갔다. F-51은 1955년 F-86F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 주력기로 맹활약을 펼쳤다.

쌩쌩이 시대의 개막, F-80 전투기(미 공군)

제트기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린 6·25전쟁을 상징하는 전투기라면, 단연 F-86과 MiG-15전투기일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의 경쟁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전쟁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제트전투기들이 한반도 하늘을 날아다녔다. 미 공군의 F-84, F-94, 미 해군의 F2H, F3D, F9F는 물론이거니와 영국 공군의 Meteor-8도 있었다. 이러한 제트기들은 비행 중 발생하는 특유의 소음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인들이 쌩쌩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쌩쌩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한반도에 등장한 전투기는 미국 최초의 제트전투기이기도 했던 F-80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나치의 비밀 병기로 명성이 자자한 Me-262가 최초의 제트전



투기로 그 명성을 날렸지만, 사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나 영국도 제트기 개발을 시작했었다. F-80도 그때 탄생한 전투기로 1945년 중반부터 미 공군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F-80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전쟁에는 등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한 지 2일 후인 6월 27일, 서울 상공에서 북한의 IL-10을 격추시키면서 멋지게 실전에 데뷔하였다. F-80은 1950년 11월 8일, 평안북도 상공에서 소련군 측의 MiG-15와 조우해 역사상 최초로 제트기간의 공중전 시대를 개막하기도 했다. F-80은 MiG-15에 비해 성능이 열세임이 알려져 일선에서 급격히 물러났지만, 6·25전쟁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든 기념비적 제트전투기로 커다란 한 획을 남겼다.

공포의 은색 날개, MiG-15 전투기(소련군)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UN군 지휘부는 전황을 낙관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UN군이 확보한 제공권도 한 몫 했었다. 아군이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도 한반도 전역을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녔을 만큼 미 공군은 막강했다. 그런데 1950년 11월 1일, 압록강 상공을 초계중이던 F-51편대는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적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는 6·25전쟁의 항공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이었다. 후퇴익을 가진 은색의 적기는 엄청난 속도로 F-51을 가로질러 공격을 했는데, 미군기들이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바로 MiG-15의 극적인 등장이었다. 이후 MiG-15와 상대해 본 미 공군은 속도, 상승력, 화력에서 F-80이나 F-51이 상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B-29 같은 폭격기 승무원들은 MiG-15 출몰지역으로 출격을 거부할 정도로 미 공군에 엄청난 충격과 노이로제를 안겨줬다. 다행히 F-86의 빠른 등장으로 MiG-15의 충격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미국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소련의 항공기 제작능력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으로 입증됐고, 미국과 러시아 전투기간의 경쟁구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극적인 대항마, F-86 전투기(미 공군)

아마도 전쟁사, 특히 무기사에서 가장 극적인 도전과 응전이 있다면 MiG-15의 등장과 F-86의 대응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흔히 항공전사에서 이들 외에도 라이벌로 여겨지던 맞수들이 많았지만, Me-109와 Spitfire처럼 이미 서로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MiG-15의 갑작스런 등장에서 서방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F-86의 등장도 일견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개전 초기, 미국은 F-80같은 초기 제트전투기만 가지고도 6·25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밀리에 개발을 완료한 F-86의 한반도 배치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MiG-15의 참전으로 제공권의 확보가 불분명해지자, 더 이상 최신에 전투기의 한반도 투입이 지체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미국의 자신감대로 대한민국에 전개한 F-86은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그 역할을 다했다. 흔히 MiG 회랑(MiG alley)이라고 불린 청천강 북부의 MiG-15 출몰 지역은 얼마가지 않아 F-86의 신화가 쓰이는 창공이 되었다. 소련측에서는 부인하지만 미측에서는 10대 1의 격추비를 주장했을 만큼 F-86은 뛰어난 전과를 올렸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F-86의 성능이 MiG-15를 압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었고, 조종사들의 기량 차이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비밀리에 중공군 복장을 입고 소련 조종사들이 참전했을 만큼, 공산군 측은 조종사가 부족했다.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미군 조종사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F-86이 MiG-15의 대항마로 찬란하게 등장했다는 것을 폄하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1955년 F-86은 대한민국 공군에도 도입됐고, 본격적인 제트시대를 열은 기념비적 전투기로 오랫동안 그 역할을 다했다. **AF**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 항공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기초 -

연재순서

1. 시작하면서
2. 군사이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
3. 군사이론 옹호론자와 배척론자
4. 전략범주의 이해
5. 끝맺음

이번 달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나의 연재 <Pioneers up above>는 시대를 앞서간 항공전략사상가들의 일대기와 에피소드, 사상들을 재미있게 엮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들의 선구적 항공전략사상을 씨앗으로 오늘날 각국의 공군력이 어떻게 성장해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전략들이 최근의 전쟁(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지를 흥미롭게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코너는 감사하게도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께서 글을 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 시작하면서

견해의 불일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해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지 못해 일어나는 불일치와 하나의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일어나는 불일치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오늘날 '전략'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대할 때마다 각자가 다른 그림을 연상케 한다. 이는 용어를 현실적으로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어떤 이는 '전략'을 전투를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기술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군사적 수단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운용하는 방법이라고도 한다.

인식적으로 볼 때, 그 같은 견해 모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 운용'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의 특수성과 일반성, 폭과 깊이 등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쉽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다. 결국, 오늘날의 '전략'에 대한 견해는 연구나 관심을 갖는 주체의 입장과 처지, 사용목적에 따른 의식적 행태, 적용대상, 가용수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용되고 있으며, 이는 그 의미의 확장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우리가 '전략'의 개념을 협소하게 사용한다면 전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 내의 한정된 관심사항만을 고려할 것이다. 반대로, '전략'의 개념을 확장해서 사용한다면, 개념이 초점을 상실하고 혼미해질 것이다.

현상적인 측면에서 좀 더 명료하게 관찰해보자. 오늘날 '전략'을 연구하는데 제기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일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과 한국적인 특수성이 섞여 있다.

첫째, 전략을 이론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심각하게 존재한다.

둘째, 전략을 이론화할 수 있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크면서도, 실제로는 수용하는 모호한 태도가 존재한다. 이는 한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의 과학성 논쟁을 벌인다. 전략의 술(術)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하고자 하는 쪽, 과학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간주해 원칙주의자가 되어 가는 쪽도 우려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술(術)과 과학"으로 모두 얼버무리는 애매한 태도가 군사이론을 무

용한 개념으로 만들어 버린다.

셋째, 전략의 범주와 분별의 문제가 명료하지 않다. 이는 전략에 대한 이해 없이 인용만 되는 현실에서 전략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현상을 심각할 정도로 촉발하고 있다.

2. 군사이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 과연 이론과 실재는 변별적인가?

보통 군인들이 일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 일상에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애써 회피해버리거나, 스스로를 기만까지 하면서 외면해 버리는 말이 있다면 '이론(Theory)' 일 것이다. 그것은 통상 "이론은 실재와 달라", "이론보다 실재가 중요해"라고 구호처럼 내뱉는 "신념에 찬 절규"가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론은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논할 일이고, 군인은 행동해야 한다는 강변 속에서 이론에 대한 군인들의 통상적인 태도를 잘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미증유의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불분명하고 미리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상황 역시 준비해야만 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 우리 삶의 과정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긴 여행을 떠나는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안내지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이론'에서 찾는다.

이론은 형식적으로는 일반론 법칙들의 체계적 연결이며, 어떤 현상의 규칙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다. 즉, 사실과 사실 간의 연결 관계를 경험적 일반론이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서울 : 박영사, 1992), p.57.** 그리고 이론은 경험현상이 나타내는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며, 그 현상을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현상은 실체와 과정의 구체적 표현이고, 이론은 현상 뒤에 숨겨진 어떠한 실체와 과정에 관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론은 현실을 인지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있어 필요한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가 되며, 생각을 정립하는데 있어 준거가 되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 Work)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측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조차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실한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군인들은 이론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론에 대한 전통적 군인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현실을 분석해 인식하는 방법론과 그 정책적 대안의 당위성을 논하는 것을 혼동한다. 이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한 후,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문제를 파악·설명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의식해 가치, 감정, 목적이 개입된 분석의 과정을 밟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잡다단한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개발하는 쪽은 이론연구자들의 몫이고, 이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평가·집행하는 것은 실천자들이 해야 할 몫인데 많은 경우, 이를 혼용해 분별을 잃는다는 것이다. 실천자들이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정과 거리가 멀다. 이는 마치 여러 번 다녀봐서 "잘 아는"(Know) 길을 가는 경우와 "처음 가지만"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차근차근 찾아가는 경우로 비유할 수 있겠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Why-How'와 'Know-How'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론을 만드는 사람의 임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칙(Why-How)을 만드는 것이고, 전통적 군인들처럼 이론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론을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Know-How)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 단순한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현실적 혼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Third Edi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Introductory Essays by PETER PARET,
MICHAEL HOWARD, and BERNARD BRODIE,
with a Commentary by BERNARD BRODIE

전쟁론

두 번째 입장은 '이론에 대한 몰이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론은 어렵다는 선입견과 이론이 현실문제에 해답을 곧바로 주지 못한다는 응답함에서 비롯된다. 이론이 어렵다는 선입견은 생각보다는 행동에 익숙해 있고 **군인들의 성장과정이 육체적 단련의 과정에 중점을 두어온 현실적, 역사적 결과**, 과정보다는 결과, 즉 아이디어의 참신성보다는 정해져 있는 절차와 규칙의 신속한 적용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군인들의 특성이 이론적 행동의 가치를 가볍게 만든다. 이는 이론적 작업의 과정이나 이론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기회를 차단시킨다. 결국, 전통적 군인들에게 있어 '이론'은 생경하고 낯설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일방적인 사실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론을 앞문으로 내보내고, 옆문으로는 받아들인다. 즉, 이론을 완전히 배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군사문제를 이론적으로 이미 해결하고 있다.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론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에 관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론적 작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한다. 또한 문제를 사리에 맞게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론을 통해 얻어진 '논리'에 기반을 둔다.

이론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연유가 있다. 즉, 이론이 현실문제에 대한 해답을 곧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 속 깊이 잠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기에 익숙해져 있는 군인들은 대체적으로 직선적이며, 즉각적인 속성을 보인다. 그러한 까닭에 군사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태도도 이러한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현실문제의 해답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즉각적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은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나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이 겪었던 문제를 자신의 경험 또는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 모든 것을 과거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급변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론은 구체적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급변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역(Guideline)을 갖고자 함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과 '참조'를 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하지만 실천적 행동방안으로서의 '이론'에 따라 행동했다라도,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현실에 있어서 이론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성립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도와 나침반에서 "목적지에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다. "목적지로 가는 방향과 길을 참조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도없이 목적지로 가는 시행착오를 원치 않듯이 이론없이 군사문제를 취급하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아야 한다.

3. 군사이론 옹호론자와 배척론자, 과연 군사이론은 과학적인가?

군사문제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에게 쉽게 애용되고, 널리 퍼져 있는 중심적 사고가 있다면 아마도 이는 '전략'일 것이다. '전략'은 군사문제에 관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키워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는 문제를 관찰해서 설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이론'의 과정과 일치한다.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보편적 의미의 '이론'은 일반적인 사회현상(과학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략'은 그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첫째, '이론'은 우리에게 존재(실체)나 현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Know)'보다 '이해(Understand)'할 수 있게 만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실제로는 "이론(Theory)"이라는 것까지도 이해하게 해준다. 전략은 실존(사물)과 사건으로 구성된 어떤 현상에 관한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상호관계를 다룬다. 즉, 전략은 대상의 존재를 파악해 그 존재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만들어 대상파악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이론은 '구체성'과 '특수성'을 다루기보다는 '일반성'에 대해 다룬다. 추상도가 높은 논리로 현상의 '일반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잘 구성된 이론일수록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전략 역시 개별적인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많은 것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좋은 전략이란 구체적인 현상에 제각기 답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전체를 꿰뚫는 관점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이론은 과거를 보다 정확히 기술하고, 현상을 정확히 묘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전략 역시 '경험'과 '통찰'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현재를 통제해 미래를 예측가능하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은 '이론'과 '전략'을 같은 현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전략이론에 대한 '옹호적 입장을 견지'하는 측과 이를 '배척'하는 측이 있다. 통상적으로 전장에서 전투를 경험한 군인들은 전쟁문제의 이론화를 가볍게 여기거나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 전장에서 어떠한 "가르침"이 전쟁을 승리로 안내해 줄 것인지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이론의 현장적용은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신 없는 이론의 적용보다 확실한 '스스로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문제를 다루는 것을 재간(craft)이자 기술(art)이라고 여겼다. 즉, 전쟁이란 너무나 번덕스러워 일반화, 즉 이론화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모든 군사적 상황은 항상 독특한 것이며, 경험에 바탕을 둔 직관이 올바른 해결책을 발견하는데 추상적

인 이론보다 훨씬 유용하다. 군사문제에 있어 판단은 과학적이거나 이론적일 필요는 없으나,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군사경험은 스스로 깨우쳐야만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숙달돼 직관적인 지식이 된다고 믿었다. 헝가리의 철학자인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는 이를 “사사(私事)로운 지식(知識)”이라고 하였다. 에로사외트 하키비, “고전전략과 현대전략에서의 이론과 교리”, 군사전략론, 이종혁 편(서울: 박영사, 1987), p.201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군사이론은 불필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 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전쟁이란 “의도되지 않은 사건과 즉흥의 집합”이므로, 전쟁은 ‘반복성’과 ‘법칙성’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군사이론의 성립은 불가능하며, 장군·지휘관들의 통찰력과 식견이 중요하다. 사실, 전쟁의 많은 부분에 있어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군대는 독립적인 소립자들의 단순집합체가 아니다. 군대는 훈련과 조직을 통해 군인을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적 경험에 군대를 맡길 수 없다. 또한 사적경험(私的經驗)의 합이 전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는 환원주의 전체를 부분으로 분해해 이해하려는 인식적 경향을 말한다. 단순합계(simple sum)나 기계적인 전체(mechanistic whole)의 경우에는 환원이 가능하지만 “부분 간의 관계”가 있는 구성적(constitutive)인 경우에는 환원시키지 못한다. (reductionism)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에 관한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주장은 과학, 즉 이론에는 현상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전략 역시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승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요소들을 관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이론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전략은 단 한 가지의 평가 기준, 즉 승리만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뜻하며, 거기서 추론되는 전략의 법칙들이 교리(doctrine)가 된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만능법칙을 제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즉, 전쟁에서는 확실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성공으로 인도해주는 길이 될 것이다. 이론은 사람들에게 모든 가능한 경우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수학처럼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피해야 하는 과오들을 항상 지적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J. D. Hittle, The Art of War, Harrisburg, 1942, p.159”라고 조미니는 말했다.

결국, ‘이론’은 지휘관에게 그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적 근거(conceptual framework) 혹은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를 제공하지만,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수학적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Karl Von Clausewitz, On War, translated by M. Howard and P. Paret, Princeton, 1976, p.140. 이 점에 대하여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이론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성공을 위한 좁다란 통로를 짤 수도 없다. 이론은 좁다란 통로 한쪽에 원리원칙의 울타리를 치으로써 유일한 해결책이 존재하리라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론은 커다란 현상과 그들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높은 행동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든다.” Ibid., p.578.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장수가 전장으로 갈 땐, 이론과 법칙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이론과 법칙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구사할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전략’에 대해 거는 기대가 전세기의 군인들이 제시했던 우려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야 한다. ‘전쟁과 전략에 관한 이론’은 전쟁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기하학으로 축소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장수의 재능을 지닌 사람을 속박해, 규칙을 고지식(pedantry)하게 쫓게 만들 것 Ibid., p.84.”이라고 하여, 군사이론이 교조주의(dogmatism)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다. AF



마이클 폴라니



클라우제비츠



옥만호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6·25전쟁 100회 출격 조종사이자 승호리철교폭파작전의 주역이었던 제12대 참모총장 옥만호 장군이 지난 5월 13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25년 9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 사관후보생 8기로 입관했으며, 제10전투비행단장, 공군 대학 총장 및 공군사관학교장, 참모차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쳐 제12대 참모총장('71. 8~'74. 7)을 역임했다. 故 옥만호 전 총장의 장례는 박종헌 참모총장을 장의위원장으로 한 공군장으로 엄수됐다.

박종헌 참모총장은 “난초의 향은 천리를 가고 사람의 덕은 만리에 퍼진다고 했듯이, 총장님의 고매한 인품과 지극한 후배사랑은 모든 공군인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생전에 보여주신 열사봉공의 정신을 받들어 살아생전 그토록 열망하시던 정예 공군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지휘관회의

참모총장은 5월 9일, 화상회의로 공군 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국방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와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공군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모든 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각급 부대장은 소속장병과 군무원들이 장관님께서 전군 지휘관회의 시 강조하신 국방개혁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공감대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군대다운 군대, 국민의 군대로서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한 외국무관단 초청

참모총장은 5월 13일, 주한 외국무관단 부부를 초청해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대한민국과 모국의 군사협력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무관단장 태국의 청와린 대령을 비롯한 주한 무관단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다음 주 토요일인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21일을 염두에 두었듯이 대한민국 공군도 무관단 여러분들과 둘이 하나 되는 소중한 벗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혜은빛마을 위문

참모총장은 5월 7일,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자혜은빛마을 (대전시 서구 오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였다. 이날 참모총장은 어르신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군악공연과 마술공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AIR FORCE MONTHLY

2011. 06. NEWS

창공의 별, 하늘에 지다.

옥만호 前 공군참모총장 별세

6·25전쟁 100회 출격 조종사이자 승호리철교폭격
작전의 주역으로 제12대 참모총장을 지낸 옥만호 장군이
5월 13일 별세했다.



적진에 공중 보급 교두보를 확보하라!

제5전술공수비행단, 공정통제사 야전종합훈련 실시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경남 의령군 산악지역 일대에서 공정통제사 23명과 C-130, CN-235 수송기와 HH-47 탐색구조헬기 등의 항공전력이 참여한 '공정통제사 야전종합 훈련'을 실시했다.

공정통제사(CCT : Combat Control Team)는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에 침투해 아군측 수송기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후속 물자가 투하될 지점의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고유임무인 항공기 유도·통제뿐만 아니라 공중 및 수상 침투, 장애물 제거를 위한 폭발물 설치 등의 능력까지 고루 갖춰야 한다.

훈련에 참가한 장태영 원사는 "적 후방 교란 및 교두보 확보 작전 시, 감습부대 병력 및 물자가 적 수중에 들어가는 안되기 때문에 공정통제사가 가장 먼저 적지에 들어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정통제사는 교전 중에도 전투장비·탄약·병력을 공중 재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임무를 설명했다.

전군 최초, 미군 실전용 장비 활용한 폭발물처리 연합훈련

북부전투사령부, 차량폭발테러 대응능력 강화

북부전투사령부는 지난 5월 13일, 필승사격장에서 한·미 공군 폭발물 처리요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급조폭발물 처리훈련을 실시했다.



차량 급조폭발물(VBIED : Vehicle Borne Improvised Explosive Device)은 군용폭약 및 상용폭발물을 차량 내부에 적재 또는 설치한 후 직접 작동시키는 자살 차량테러, 원격 폭발장치를 이용한 원거리폭파 테러 등으로 제작된 모든 차량을 말한다.

이날 훈련은 실제 승용차에 폭발물을 설치한 후, 처리용 자재를 이용해 제거하는 실전적 훈련을 통해 현장요원의 차량폭발테러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군 최초로 미 공군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실전에서 운용하는 장비와 방법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공군 폭발물 처리요원의 차량폭발테러 대응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6만시간 무사고 비행 금자탑

제19전투비행단, 6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 가저

제19전투비행단은 지난 4월 27일,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비행단 6만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달성을 축하하기 위한 무사고 비행안전 시상식을 가졌다.

162전투비행대 박현식 대위가 탑승한 F-16전투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함으로써 달성된 이번 기록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기록으로, 거리로 환산하면 약 3,240만km, 지구 둘레 806바퀴에 해당되는 거리이며, 지구와 달 사이를 약 85회 왕복한 거리이다. 무사고 비행기록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실전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딛고 조종사, 정비사, 무장사, 관제사와 비행단 장병 모두가 노력한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군 원로 보라매의 변치 않은 후배사랑

장지랑 9대 참모총장,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9대 참모총장을 역임한 장지랑 장군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오창환 공군사관학교장에게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장지랑 9대 참모총장은 6·25전

쟁 당시 강릉전진기지의 작전참모로서 역사적인 한국공군 단독 출격작전을 계획하는 등 공군작전의 기틀을 다진 창군기 원로 중 한 분이다. 이후, 제11전투비행단장, 공군사관학교 교장, 공군 참모차장을 거쳐 제9대 공군참모총장(66. 8~68. 7)을 지냈다. 참모총장 재임 당시에는 국내·외 항공수송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5전술공수비행단과 전투조종사 양성 비행훈련을 담당하는 제3훈련비행단을 창설하는 등 공군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날 장지랑 전 참모총장은 “공군사관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으뜸인재를 배출하여 선진정예공군 육성의 산실이 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으로 국가와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예장교 양성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예 방공전투요원은 우리에게 맡겨라!

방공포병학교,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최정예 방공전투요원 양성 총력

방공포병학교(이하 '방포교')는 방공전투요원 양성 교육훈련에 '실무연계 교육'을 도입하는 등 지금 당장 싸워도 이기는 '전투형 방공전투요원'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포교는 패트리엇, 호크, 나이키 등 공군의 전 방공무기를 운용 및 정비하는 방공전투요원을 육성하는 곳으로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의 전초기지가 할 수 있다. 또한 방포교는 방공요원에게 필요한 특기초급교육과 직무교육 간 교육범위, 요구수준 등을 명확히 설정해 교육부대로부터 각급 일선부대까지 연계된 실전적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투형 방공전투요원 육성을 위해 패트리엇 교육과정에는 패트리엇 사격훈련장비(PCOFT : Patriot Conduct of Fire Trainer)와 패트리엇 실무실습 등 교육생들이 실제장비를 직접 운용해보는 시간을 늘렸다.

패트리엇 교관 나경열 대위는 “PCOFT, 패트리엇 실무실습 등과 같은 교육이야말로 실무부대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방공요원 배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며, “방공포병요원들은 지금 적 항공기와 교전하더라도 격추시킬 수 있는 영공방위의 최첨병이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공군, 항공무기체계 부품 '메이드 인 코리아' 선도

군수사령부, 항공무기체계 부품 견본전시회 개최

군수사령부는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경기 국제항공전이 열리는 경기도 안산에서 '항공무기 체계 부품 견본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항공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와 정비능력 구비를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수입대체에 따른 외화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투기, 수송기,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부품, 그리고 각종 항공무기체계에 장착되는 수리부속 등 총 1,400여 점의 부품이 전시됐으며, T-50 시뮬레이터 S/W 개발 장비 등 공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각종 항공전자 관련 장비 및 S/W도 함께 전시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윤성균 안산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서 박종현 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은 첨단 소재와 고도의 정밀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블루오션의 영역이자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하며 “공군

은 항공 부품의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확대나 현장 공개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더 이상은 No, No, No~!

제38전투비행전대, 가상음주운전체험 교육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대 전 장병과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상 음주운전체험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주는 특수고글을 쓰고, 일직선 걷기·다트 던지기·자전거 타기 등을 하며 술을 마셨을 때와 평

상시의 지각능력 차이를 경험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음주운전 근절서약서에 서명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38전대는 음주사고 근절을 위해 주말과 연휴에 '음주운전금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서단위 및 5인 이상 회식 시 차량지원 등 실질적인 음주운전 사고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관종합평가제, 공군이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사령부, 3군 중 최초로 임관종합평가제 시범 시행

교육사령부는 지난 3월 16일, 제209기 부사관후보생의 임관종합평가제를 시범 시행하였다. 연초 국방부에서 '당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임관종합평가제의 도입을 지시한 후, 이를 시범 실시하는 것은 공군이 처음이다.

임관종합평가제는 임관 전 훈련지도능력·전투지휘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간부만 임관시키는 평가제도로서 공군이 임관종합평가제를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실시 중인 종합교육검열의 역할이 컸다.



공군은 70년대부터 임관 전 제식·태권도·응급처치·지휘법 등 핵심과목에 대한 교육 검열을 실시, 부족한 경우 재검열을 실시하고, 능력이 부족한 후보생을 유급/도태시켜 유능한 자원만이 간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범적으로 실시한 임관종합평가제는 기실시 중인 종합교육검열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한 것이다. 임관종합평가제를 준비한 공군 교육사령부 평가실장 이병취 대령(진)은 "그동안 간부과정에서 실시한 종합교육검열의 축적된 경험이 임관 종합평가제 시범시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번 시범시행으로 파악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강인하고 유능한 간부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어버이날 행사 개최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사관생도 경료효친 사상 및 가족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도 전원과 학부모·친지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성무연병장에서 카네이션 증정, 명예위원장 생도의 감사 글 낭독, 어버이날 노래 제창, 열병 및 분열(퍼레이드), 응원리더반(이카루스) 시범공연, 영상메시지(1학년 생도 자체제작)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학부모들과 식사를 마치고 이어진 중대별 자율행사에서는 부모님 발 씻겨 드리기, 부모님 손 찾기, 감사편지 낭송 등을 통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기념식에서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글을 낭독한 구상협 명예위원장 생도는 "그동안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효(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는 사관생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름발이 강아지를 산 아이



가게 주인이 문 앞에 '강아지 팝니다.'라고 적힌 광고판을 걸어놓았습니다. 몇 시간 뒤, 한 남자아이가 광고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강아지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30달러에서 50달러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단다." 하지만 아이가 가진 돈은 고작 2달러 75센트. 강아지를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그래도 한 번 구경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휘파람을 한 번 세게 불자, 털이 복슬복슬한 귀여운 강아지 다섯 마리가 쾅쾅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뒤통서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강아지 한 마리가 아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궁금한 마음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가요?” “응, 태어날 때부터 그랬단다. 의사가 그러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구나.” 아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잘 됐네요. 저 강아지를 살래요.” 아이의 뜻밖의 대답에 주인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싫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 강아지를 갖고 싶니? 그렇다면 그냥 줄게. 어차피 아무도 사지 않으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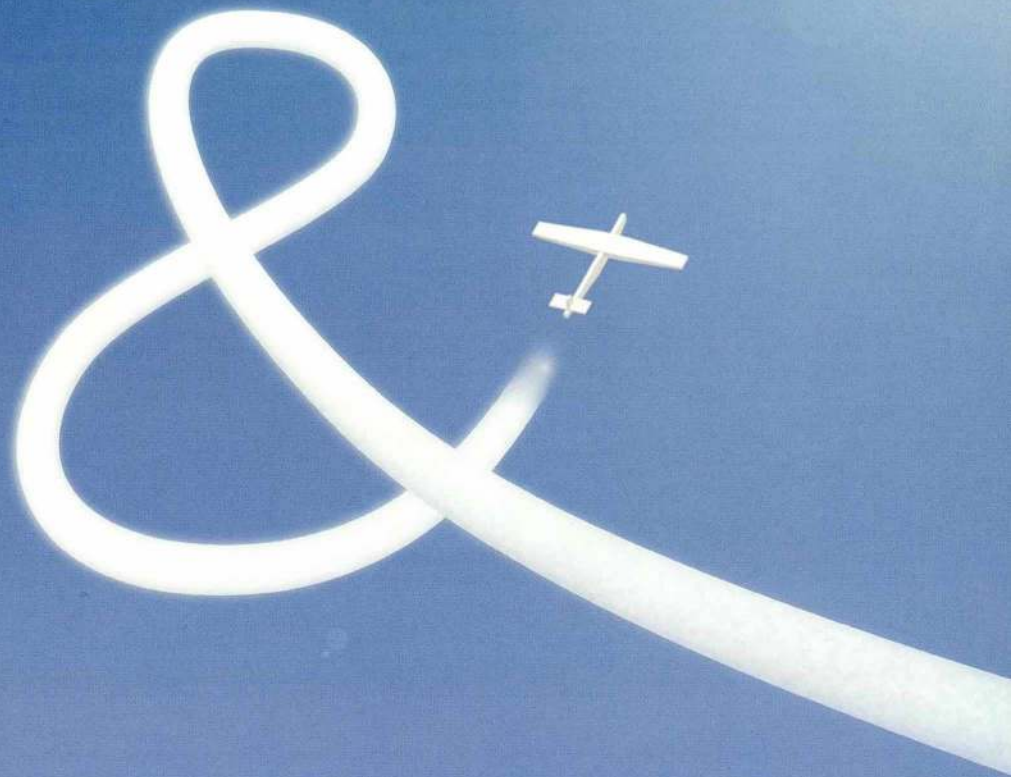


그러자 아이는 조금 화가 난 듯 주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니예요. 공짜로 주실 필요 없어요. 다른 강아지랑 똑같은 값을 받으세요. 지금 제가 가진 돈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매달 50센트씩 꼭 드릴게요.” 주인은 한 번 더 아이를 타일렸습니다. “정말 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깐. 이 강아지는 다른 녀석들처럼 너랑 폴짝거리며 놀아줄 수 없는 병들고 쓸모없는 강아지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바지를 걷어올려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형적으로 가늘어서 바닥을 지탱할 수도 없을 만큼 휘청거리는 얇은 다리를 육중한 금속 지지대가 간신히 받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주인을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달릴 수가 없는 걸요. 주인아저씨에게는 비록 쓸모없을지 몰라도, 저에게 이 강아지는 제 상황을 함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예요. 저 절름발이 강아지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Culture 36.5

쿵푸 팬더 2

* Hollywood English

나는 가수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우리는 죽겠습니다

* Air-Supply

사람이 되고 싶었던,
어느 물의 요정 이야기 [루살카]

* 인생은 아름다워

6월의 문화행사

* Preview





그 분이 돌아오셨습니다!

'Back for Seconds!' (쿵푸 팬더 2)(Kung Fu Panda 2)의 미국 포스터에 실린 홍보문구입니다. 주인공 포(Po)가 '2편으로 돌아온다.'는 뜻을 담은 것이지요. 그 뜻이 다일까요? 또 있습니다. 나머지를 알려면 seconds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지요. 'Back for Seconds'의 seconds는 'another serving of food, after you have eaten your first serving'입니다. 압축하면 '두 번째 받는 음식 서빙'이 되겠군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먹는 데 집중하는 팬더의 특성을 반영한 카피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저는 이 영문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번엔 한 술 더 뜬다!'

2편의 악당은 어떤 공작을 꾸미나

2008년에 1편이 개봉한 이후로 우리가 3년 동안 궁금해 한 것이 있지요. '왜 포의 아빠는 거위일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됐습니다. 포의 출생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니까요. <쿵푸 팬더 2>는 이런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내레이션의 주인공은 Soothsayer, 즉 '점쟁이' 할멈입니다. 영화에선 포에게 멘토 역할을 맡기도 하지요. "A long time ago in ancient China the Peacocks ruled over Gongmen City." 고대 중국의 '공멘성'을 공작새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어지는 내레이션에 따르면, "공작새들은 폭죽을 만들었으며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폭죽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셴'이라는 이름의 후계자 공작새만은 어릴 때부터 폭죽을 들어다보며 그 속에서 악의 힘을 보았으니..." 자, 이제 확실하게 감이 오지요? 2편의 악당은 공작새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공작을 꾸밀까요?

5인방(The Furious Five)의 새 미션

용의 전사(The Dragon Warrior) 포(잭 블랙)는 평화의 계곡(The Valley of Peace)에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득달같은 호출명령이 떨어집니다. 누구로부터? 맞습니다. 시푸(Shifu) 사부님이 그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모르지기 쿵푸의 고수라면 꼭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가 '내면의 평화 (Inner Peace)'이니, 그걸 위한 수련을 게을리 해선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먹는 족족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내장의 평화'에 관해서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너스레를 떠는 포! 허허, 그 녀석 참! 그때 타이그리스(안젤리나 졸리)가 달려와 이웃 마을에 늑대들로 구성된 도적떼가 떴다고 알립니다. 호권의 호랑이(Tigress), 몽권의 원숭이(Monkey), 당랑권법의 사마귀(Mantis), 사권의 독사(Viper), 그리고 '족발당수'의 고수인 도 동 '공포의 5인방(The Furious Five)'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새로운 악당이 등장하다!

5인방이 뜨자 늑대 도적떼는 쏙살같이 달아납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을의 모든 쇠붙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공멘성으로부터 추방된 공작새 셴(게리 올드만)은 공멘성을 떠나며 이런 복수의 다짐을 남겼습니다. "Someday I will return and all of China will bow at my feet." 즉, '언젠가 꼭 돌아올 것이며, 그땐 중국 대륙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셴이 돌아온 것이며, 가공할 위력의 대포를 만들기 위해 늑대 부하들을 시켜 모든 쇠붙이를 약탈해간 것이지요. 시푸 사부님이 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5인방은 다시 출동합니다. 한편 공멘성은 이미 셴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소문으로만 듣던 용의 전사가 팬더라는 사실에 셴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기가 팬더들을 몰살시킨 걸로 알고 있었건만 생존자가 자기 앞에 버젓이 나타났으니 말이지요. 셴은 포에게 들입다 대포를 겨눕니다.

흑과 백의 전사와 공작새의 숙명적 대결

그렇다면 셴은 왜 모든 팬더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셴이 추방되기 전 점쟁이 할멈이 셴의 부모에게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셴이 계속 악의 길을 걷는다면 흑과 백의 전사에게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If Shen continued on his dark path he would be struck down by a warrior of black and white)." 셴은 흑과 백의 전사가 팬더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래서 팬더들을 몰살하려 했던 것인데, 그들 중에 포의 부모도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포는, 부모를 죽인 원수가 셴이라는 걸 알게 된 포는 과연 막강한 화력의 무기를 가진 악당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중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셴의 야욕까지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 전말은 스크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독의 오마주 투 코리아(Hommage to Korea)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쿵푸 팬더 2>는 한국계 미국 여성인 제니퍼 여(한국명은 여인영)가 감독한 블록버스터입니다. 1편에서 스토리 총책임자로 활약한 제니퍼는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렇기에 2편의 감독직을 맡게 된 것이지요. 픽사(PIXAR)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더불어 양대 산맥으로 통하는 드림웍스에서 애니메이터로 출발한 그녀가 간판급 영화의 감독직을 제의받게 된 건 바로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 줄 아는 그녀의 탁월한 역량 덕분일 것입니다. 관객을 감동시키고, 관객의 감성을 100% 건드릴 수 있는 원석이자 원천인 것은 바로 스토리의 힘이니깐요. 한국계 감독의 모국 사랑이랄까요, 저는 제니퍼가 2편에 '오마주 투 코리아'를 심어놓았다고 믿습니다. 아끼릴 때의 포가 엄마 팬더와 이별하는 결정적 장면에서 또렷하게 웅얼이를 하거든요, 이렇게! "엄마!" **AF**

오페라 무대 위의 사람들 ⑥



사람이 되고 싶었던, 어느 물의 요정 이야기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





언제나 가질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20세기 최고의 성악가였던 테너 엔리코 카루소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고도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 그 누구보다 불행하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단 한 가지를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기 때문이다.

깊은 숲속 호수에 사는 물의 요정 '루살카'. 그녀 역시 다르지 않았다. 호수에 몸을 감춘 채 살아가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따금씩 호수를 찾아오는 왕자님 생각밖에 없었다. 아름다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의 요정인데도, 루살카는 왕자를 소유하고픈 욕망으로 시름에 잠겨있다. 그녀는 물거품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요정이었기 때문이다. 왕자님을 안을 수도, 심지어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알릴 수가 없었던 루살카는 왕자님과 포옹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노래한다.

오, 벨벳 빛의 하늘의 달님이시여

당신은 저 멀리까지 빛을 보내고, 온 세상을 거닐며,
사람들이 사는 집안도 내려 보십니다.

오, 달님이여, 잠시만 제 곁에 머물러, 제 사랑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디 그에게 전해 주세요, 은빛 달님이여,

한순간만이라도 그가 나를 꿈꾸리라는 작은 희망만으로 나의 두 팔은 그를 포
옹한다고,

그 분을 비추어 주세요, 이 세상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전해 주세요.

여기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름다운 여름날 밤, 세상을 비추는 달에게 소원을 비는 '달에게 부르는 노래'. 한밤중의 달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물의 요정 루살카의 노래다. 루살카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된 '호수의 도깨비'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체념하며 마녀 '예시바바'를 소개해 준다. 이미 사람들 사는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루살카에게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테니...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호수 기슭의 오두막. 왕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루살카는 겁도 없이 예시바바가 사는 오두막에 찾아가다. 이제 루살카는 아무 것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다. 밖에서 구슬프게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오두막을 나온 마녀 예시바바는 아름다운 루살카가 왕자의 노예가 됐음을 알고 사악한 웃음을 짓는다.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왕자와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루살카의 말에 예시바바의 눈은 더욱 사악하게 빛난다.

마녀는 루살카에게 사람의 모습을 주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내건다. "네가 지상에서의 사랑에 실패한다면, 삶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채, 호수 깊숙한 곳에 버려지게 될 거야. 또한 네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 너는 모든 인간들 사이에 침묵으로 던져지게 될 거야."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말을 못하는 병어리의 모습으로, 또 왕자와의 사랑에 실패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살카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루살카를 막

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마녀 예시바바의 마법이 시작된다. 숲의 요정들은 두려움에 사라지고 루살카를 아끼는 물의 요정들은 슬픔에 잠겨 마녀의 오두막을 바라본다.

그때 멀리서 사냥꾼의 뿔피리 소리가 들려온다. 때마침

숲의 호숫가로 사냥을 하러 나온 왕자가 등장한 것이다. 너무나 피곤해 하던 왕자는 호숫가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그의 눈앞에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린 가녀린 여인, 루살카가 서 있었다. 동화에 나오는 여인처럼 신비한 루살카...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한 왕자는 왕궁으로 루살카를 데려 간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여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루살카의 매력에 빠진 왕자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루살카에게는 행복한 삶이 주어지지 않았다. <인어공주>에 전해져 내려오는 슬픈 이야기처럼, 왕자의 곁에는 전부터 왕자에게 관심을 보이던 이웃 나라 공주가 있었다. 공주는 루살카에 빠진 왕자에게 한마디 던진다. "외국의 손님을 홀로 세워 둔 채 사랑에 빠져버린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게 해서야 예의가 아니지요?" 결국 이웃나라 공주의 유혹에 넘어간 왕자는 가없는 루살카를 버리고 공주를 선택한다. 루살카를 멀리서 지켜보던 호수의 도깨비. 그는 노래한다. "네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너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헤어날 순 없으리! 아무리 한 인간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를 영원히 네 곁에 묶어 둘 수는 없으리!"

루살카는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왕자를 찾아가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루살카를 밀어내며 왕자는 말한다. "당신의 몸이 마치 얼음처럼 차군요, 차갑고 창백한 여인이여!" 왕자의 영원한 사랑을 받지 못한 루살카... 그렇게 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루살카는 어느새 호수의 바닥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왕자에게도 버림받고, 아름다움도 잃고, 자매에게서도 고립된 루살카는 홀로 저주를 견뎌야 했다. 다시 돌아온 루살카에게 마녀는 말한다. "너를 기만한 자를 네 손으로 직접 죽일 때, 너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그럴 때만이 다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어."

결국 사랑하는 왕자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어야만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덧 악마의 마력에 사로잡힌 왕자는 루살카를 처음 만난 호숫가로 다시 찾아오게 되고, 왕자를 기다리고 있던 루살카는 자신을 배신한 왕자를 원망하며 그와 포옹한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지 못한 루살카의 입맞춤... 그것은 왕자를 파멸시키는 죽음의 키스였다. 하지만 마력에 홀린 왕자는 루살카의 얼음 같은 포옹과 입맞춤에 황홀해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는다. 왕자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루살카는 그의 죽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얻은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대신 따스한 사랑을 선택했던 루살카... 하지만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왕자와 함께 호수 아래 깊이 가라앉고 만다. 루살카에게 마녀 예시바바가 해준 이야기가 있었다. "인간은 오로지 다른 인간의 피 속에서 해엄칠 때만 인간인 거야. 오로지 열정에 자극되어 다른 이의 피를 퍼마실 때만 인간인 거야." 영원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의 세계에 뛰어든 루살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탐욕과 욕망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루살카...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네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와도 결코 다르지 않다. **AF**



여러분 즐거우시죠? 우리는 죽겠습니다

요즘 가요계 최고의 이슈 메이커는 임재범이다. 그가 MBC <우리들의 일밤>의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뒤 발표한 지 10년이 지난 옛 앨범이 다시 팔리기 시작했고, '나는 가수다'에서 부른 '너를 위해'는 KBS <뮤직뱅크>에서마저 1위 후보에 올랐다. 임재범이 방송 중 착용한 헤드폰이 2~3만원대의 저가 헤드폰이라거나, 임재범과 함께 무대에서 노래한 사람이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라는 사실도 화제가 된다. 이소라, 박정현, 윤도현 등 '나는 가수다'의 다른 출연진들과 비교해 봐도 임재범에 대한 관심은 유독 뜨겁다. 20여년 전에는 한국 최고의 헤비메탈 보컬이었고, '너를 위해', '고해', 지난해 KBS <추노> OST의 메인타이틀 곡을 부르는 등 꾸준한 히트곡을 내놓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컬리스트이니 그의 컴백이 화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임재범에 대한 관심은 그의 성격과 개인사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재범은 '나는 가수다'에서 "펑크내지 않고 출연하겠다."고 출연진과 약속할 만큼 과거에는 가요계의 트러블메이커였다. 워낙 속박 받는 것을 싫어하던 탓에 앨범을 내고 갑자기 산에 들어가기 일쑤였고, 공연 현장에서는 엔지니어의 영역인 음향 설정까지 무조건 자신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다 다툼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암으로 투병 중이다. '나는 가수다'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힘을 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가수다'는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벌이는 경연이 아니라 가수의 인생사가 결합된 리얼리티 쇼로 변했다. 임재범이 아내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 뒤에 이어지는 노래 '빈 잔'은 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인생의 노래가 됐고, 대중들은 그의 노래에 '영혼이 담긴 노래'라거나 '목숨을 건 절창'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최근 '나는 가수다'의 팬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을 무림 고수로 묘사하는 글이 인기를 얻는 것은 임재범의 등장 후 '나는 가수다'의 인기 요인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글 속에서 임재범이 온갖 사건을 일으키고 잠적한 뒤 다시 세상에 돌아온 절정의 무공 고수로 묘사되는 것처럼, '나는 가수다'의 가수들은 각자 사연과 특징을 가진 채 무대 위에서 최고의 무공(노래)을 선보이는 무협 소설의 캐릭터가 된 셈이다.

이번 달 새롭게 시작하는 칼럼인 <Air-Supply>는 영공방위수호에 여념이 없는 공군장병들에게 대중문화의 공기를 마음껏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칼럼입니다. 대중문화 전문매거진 <10asia>의 강명석 편집장과 함께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글, 하지만 곱씹을 만한 글을 쓰고 있다는 강명석 편집장. 그가 선택한 <Air-Supply>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요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지 가수들의 노래만 원하지 않는다. 가수의 무대를 매개로 가수의 인생사와 그들의 캐릭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합 돼 나오는 드라마를 원한다. 발라드 가수이던 이소라가 보아의 'No.1'을 록 버전으로 리메이크하는 것은 얼마나 짜릿한 일인가. 박정현이 프로그램에서 매니저로 등장하는 개그맨 김태현과 묘한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모습은 얼마나 알콩달콩한가. '나는 가수다'를 통해 임재범, 이소라, 박정현 등이 화제가 된 건 대중이 '나는 가수다'에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준다. 극적인 스토리, 만화에서나 가능할 것만 같았던 파격적인 무대, 음악과 음악 사이에 들어가는 잔재미. 임재범이 과거 출연한 SBS <김정은의 초콜릿>에서는 화제가 되지 못하고, '나는 가수다'에서는 화제가 되는 이유이자, '나는 가수다'가 근본적으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연예 프로그램인 이유다.

'나는 가수다'는 음악의 비중이 크지만, 음악 자체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 지금 대중이 원하는 다른 무엇을 충족시켜준다. '나는 가수다'의 시청자들은 한 가수의 인생사를 보며 리얼리티 쇼적인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기존 아이돌 음악과는 다른 수준 높은 음악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는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 대중은 언제나 자신의 즐길 거리를 찾고, 출연 가수들은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설 무대가 줄어든다."던 이소라는 '나는 가수다'를 통해 새로운 팬들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나는 가수다'와 임재범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음악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나는 가수다'가 온갖 화제를 모으며 디지털 음원순위 차트를 휩쓰는 동안, 다른 가수들의 신곡은 좀처럼 화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렇다 할 성적도 거두지 못한다. '나는 가수다'가 화제인 탓도 있지만, 대중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발표하고, 홍보하는 음악에는 그만큼 관심이 없는 탓이다.

'나는 가수다'와 M.net <슈퍼스타 K>, MBC <위대한 탄생> 등 개인사와 음악을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이 가요계 전체의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음악은 점점 더 음악 바깥의 요소를 끌어들이야 한다. 댄스음악의 시대가 되면서 가수들은 춤을 쳤고,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연기에 도전하는 가수들도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가수들이 자신의 인생과 음악을 결합한다. '나는 가수다'는 회당 제작비 8,000만원 중 대부분을 무대 음향에 쓸 만큼 TV 공연에서 들을 수 있는 최상의 사운드를 선보인다. 하지만 '나는 가수다'는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음악을 음악 이외의 것을 염두에 두고 감동을 느끼도록 한다. 가장 음악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음악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쇼, 가수들에게 최고의 열창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가수들이 인생을 걸고 노래해야 하는 쇼. 어쩌면 '나는 가수다'는 임재범 같은 가수가 더 이상 자유롭게 노래만 할 수 없는 시대, 음악 그 자체가 점점 더 대중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시대에 가수들이 마지막 인간함을 쓰며 비명을 토해내는 무대인 건 아닐까. **AF**



2011 '조용필&위대한 탄생' 전국투어 콘서트

〈바람의 노래〉

가왕 조용필이 2011년 전국투어 콘서트에 나선다. 환갑이 넘는 나이에도 대형 공연을 꾸준히 시도할 수 있는 저력은 조용필만이 가능한 일. 콘서트장엔 50대 어머니들이 소녀시절로 돌아가 함성의 도가나를 만든다.

이번 콘서트는 자식을 뒷바라지를 하느라 세월을 보낸 70~80년대 소녀들을 위한 세레나데. 노래뿐만 아니라 공연무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국내 그 어떤 대형 가수도 따라올 수 없는 시도, 바로 움직이는 무대 '무빙 스테이지'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가수 한 명만 움직이는 무빙 스테이지가 아니라, 연주팀 '위대한 탄생'이 함께 이동해 무대 전체가 공연장 전체를 가로지른다. 공연장 한 가운데에서 무대 아래에 있는 관객들에게 무대에 엮으려 인사하는 조용필의 제스처에 관객들은 아이돌 팬보다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다. 부모님 세대를 위한 단 하나의 공연을 꼽으라면, 6월엔 조용필 콘서트를 적극 추천한다.

- 공연일정 및 장소 : 4일 의정부 종합운동장 / 11일 청주 종합운동장 / 18일 창원 컨벤션센터
- 가격 : VIP 12만 / R 10만 / S 9만 / A 8만 / B 6만
- 문의 : (02)541-7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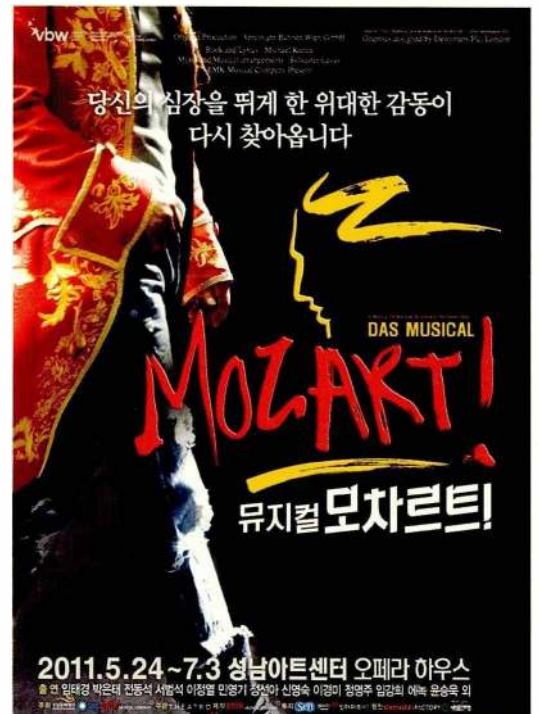
화려한 중세무대와 뜨거운 뮤지컬과의 만남, 뮤지컬

〈모차르트!〉

뮤지컬 〈모차르트!〉의 대본과 작사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이자 세계적인 극작가로 유명한 미하엘 쿤체에 의해 완성됐다. 짧지만 굴곡 많았던 모차르트의 인생을 의지의 주체인 볼프강과 재능의 근간인 아마데오 분리해, 천재 음악가의 인생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동적 갈등구조로 풀어냈다.

중세 유럽의 시대적 배경과 모차르트라는 클래식한 소재를 록의 열정, 팝의 감미로움, 재즈의 부드러운 숨결로 풀어낸 뮤지컬 넘버들은 풍요롭고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 코러스와 함께 대본의 탄탄한 구성을 호소력 있게 뒷받침해준다. 또 500여 벌의 화려한 의상과 특수 가발, 소품 등은 화려한 유럽 중세시대를 만나는 듯하다. 반면 모든 배우와 상반되게 현대의 상징인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레게머리를 한 모차르트를 통해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모차르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눈길을 끈다.

- 기간 : 7월 3일까지
- 장소 : 경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
- 가격 : VIP 12만 / R 10만 / S 8만 / A 5만 / B 3만(금, 토, 일은 +1만원)
- 홈페이지 : www.musicalmozart.co.kr



Opinio

6·25전쟁과 인간 그리고 문학

* 창공 글터

업무 노하우

작성하여 활용합시다

* 장병기고

여름철 요로결석관리

* Health Diary

아프니까 청춘이다

* 책마을

6·25전쟁과 인간 그리고 문학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1950년 6월 25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동족상잔의 슬픈 역사를 만들어낸 6·25전쟁 발발일이다. 벌써 61주년이다. 저마다 이 전쟁에 대한 평가며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같은 말을 쓰는 한 겨레가 총을 겨누고 싸운 비극이라는 점은 모두 수긍할 것이다.

전쟁은 인간을 짐승으로 추락시키고, 피아를 막론하고 그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다. 물론 전쟁이니까 이겨야 한다. 총부리를 겨누고 덤벼드는 상대방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 명분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런 글을 쓸 때면 무척 답답해진다.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운 6·25전쟁 60주년 기념으로 세운 <공중근무자 순직 추모비>에 추모의 시를 쓸 때도 그랬다. 나는 한마디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엄연히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이기도 하다. 1950년 12월에 국민방위군에 끌려가 죽을 고생 끝에 그 사관학교라는 데를 졸업하고, 속리산 지구 빨치산 토벌대의 소대장으로 복무하다 상부의 부정으로 그 조직이 해산되자, 공군에 입대했다. 12기 사병으로 경산 신병교육대 수료 후, 제5기 통신하사관후보생으로 대구 통신전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던 중, 제3기 사관생도에 응시 합격하여 진해 공사에 입교한다. 그러다 폐결핵이 발병하여 공군 병원에 입원 요양을 하다가 퇴교했다.

1953년이었다. 아직도 전쟁은 그치지 않고 대구 피난살이의 집은 식음이 어려울 정도였다. 미군부대에 교환원으로 나가는 가냘픈 누님의 수입으로 겨우 풀칠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병든 내가 얹혀살게 되었으니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날마다 대구 시내의 책방을 돌며 눈치껏 책을 읽었다. 원래 새파란 문학청년이던 나는 닥치는 대로 시집이며 소설, 희곡 등을 읽었다. 그러다가 국립극장 쪽 사람들을 알게 되어 그분들과 교류하며 연극에 관심을 가졌다. 그 무렵,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는 전국 최초로 마해송 단장, 조지훈 부단장, 김동리, 박두진, 박목월, 황순원, 이한직, 최정희 등 16명의 문인을 멤버로 하여 종군문인단을 창설하였는데 그것이 <창공구락부>였다. 기관지로는 <코메트> <창공>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책에 굶주린 나는 누가 버린 지도 모르는 이 책들을 주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이가 있다. 조지훈 시인이다.

물밀 듯 내려오는 북의 전력을 낙동강에서 저지하려는 남녘 국군과 미군은 필사의 공방전을 벌인다. 그 전투 중의 하나가 1950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다부원 전투'다. 10여 차례나 빼앗고 빼앗기는 전투 끝에 술한 남북의 병사가 전사했다. 여기가 무너지면 대구가 바로 지척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종군문인으로 여기에 갔던 조지훈 시인이 그 유명한 <다부원에서>라는 시를 썼다.



다부원에서

조 지 훈

한달 농성 끝에 나와 보는 다부원은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

피아 공방의 포화가
한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

아아 다부원은 이렇게도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구나.

조그만 마을 하나를
자유의 국토 안에 살리기 위해서는
한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 마치지 못했거니

사람들이 묻지를 말아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대로
머리만 남아 있는 군마의 시체
스스로의 누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
길옆에 쓰러진 괴뢰군 전사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령(生靈)들이 이제
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간 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
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면
이 가련한 주검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살아서 다시 보는 다부원은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함께
안주(安住)의 집이 없고 바람만 분다.

이 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중군시라면 전쟁의 참상과 폐해를 노래하면서
안이한 승전의식과 반공의식을 고취하는데, 조 시인의 <다부원에서>는 단순한 전쟁
시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휴머니즘을 노래하고 있지 않는가.

자유와 생명에 대한 응시, 괴뢰군 병사의 주검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피
아를 뛰어넘는 생면 존중의 의식을 느끼며,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함께/안주의 집이
없고 바람만 분다.”라는 결구에서는 전쟁이란 결국 허망한 인간 상실과 승자도 패자
도 없는 인간성 파멸 행위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비판과 저항을 보여 주고 있다.¹⁾

우리는 흔히 6월이 오면 단순히 그 전쟁에서 전몰한 장병을 추모하며 전쟁을
야기한 자들을 저주하고 분개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6·25전쟁 전후의 국
제정세와 열강들의 세력 균형 싸움 등의 실상을……

필자의 시 한편을 소개하면서 이 어려운 청탁의 짐을 벗고자 한다. 필자가 18
세 때 북의 공격을 피해 남으로 파신하면서 실제로 겪은 체험의 시다.

경안리에서

강 민

“이놈의 전쟁 언제나 끝나지. 빨리 끝나야 고향엘 갈 텐데”
때와 땀에 젖어 새까만 감발을 풀며 그는 말했다.
부풀고 터진 그의 발바닥이 찢어진 이강산의 슬픔을 말해 주고 있었다.
지치고 더럽게 얼룩진 그의 몸에선
어쩌면 그의 두고 온 고향 같은 냄새가 났다.
1950년 8월의 경안리 주막,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우리는 같은 또래끼리의 하염없는 얘기를 나누었다.
敵意는 없었다.

같은 말을 쓸 수 있다는 행복감마저 있었다.
고급중학교에 다니다 강제로 끌려와 여기까지 왔다는 그.
그에게 나는 또 철없이 말했다.
“북이 쳐내려오니 남으로 달아나는 길”이라고.
敵意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고, 우리만 하염없는 얘기로 밤을 밝혔다.
그리고 새벽에 그는 떠났다.
“우리 죽지 말자”며 내밀던 그의 손.
온기는 내 손아귀에 남아 있는데,
그는 가고 없었다.

냄새나고 지치고 더럽던 그의 몸과는 달리
새벽벌처럼 총총하던 그의 눈길.
1950년 8월의 경안리
새벽의 주막 사립문 가에서 나는 외로웠다.

*위의 작품은 1993년 10월호 현대문학지에 발표된 줄시(拙詩)입니다.

정말 그랬었다. 우리는 적의 없이 악수하며 헤어졌고, 지금도 가끔 그의 안부
가 궁금해진다. 그때 서로가 총을 겨누고 전쟁터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AF**

1) 김보아 블로그 참조

여름철 요로결석관리

STAY HEALTHY

6월이지만 벌써부터 무더운 날씨가 잏습니다. 여름철과 관련된 호발질환에는 요로결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 및 요관 등 요로계에 이물로 작용해 요로감염을 일으키고, 요류장애를 초래하여 신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요로결석은 주로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인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축되면 요석이 생성됩니다. 요로결석은 20~40대에 주로 발생하며, 남녀의 비율은 약 3:1 정도입니다. 보통 요로결석은 남성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질환인데, 이는 남성호르몬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요로결석의 환경적 조건은 산이 많은 지역, 사막, 열대지방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한여름 뜨거운 사막을 연상케 하는 비행장이나 산간지방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공군장병들은 요로결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자도 요즘 같은 더운 시기에 요로결석으로 진료실을 찾는 장병들이 부쩍 많아짐을 체감하곤 합니다. 그럼, 이번 달은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을 앞두고 요로결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로결석 증상

소변을 생성하는 신장, 소변이 배출되는 경로인 요관, 요도, 방광 등의 모든 요로계통에서 요석에 따른 폐색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통증 및 혈뇨를 유발합니다. 통증의 위치와 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심한 통증은 주로 신장과 방광의 중간경로인 요관이 막혔을 때가 흔합니다. 통증부위는 옆구리에서 등 쪽에 위치한 측복부가 흔하며, 하복부로도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오심,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측복부의 통증 외 결석을 유발하는 주요증상으로는 혈뇨가 있습니다. 통증 없이 지내오다 어느 날 우연히 신체 검사에서 소변에 혈뇨가 나와 요로결석이 발견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40대 이상 혈뇨는 신장종물, 방광종물, 전립선비대증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40대 이하 혈뇨의 원인으로는 우선 요로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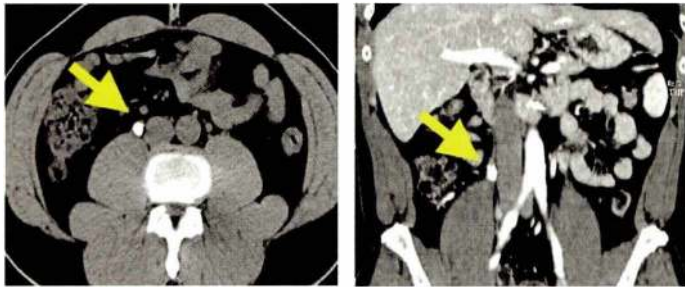
요로결석 진단

요석진단의 우선적인 진단방법은 복부초음파 혹은 복부 X-ray촬영이 있습니다. 초음파 및 CT장비가 갖춰 있지 않은 의무대에서는 복부 X-ray를 통해 요로결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종류의 결석이 X-ray에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결석을 이루는 결정체의 성분에 따라 발견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X-ray에서는 결석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옆구리 통증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혈뇨가 있다면 초음파 혹은 CT촬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공우주 의료원을 방문하셔서 특수영상촬영을 받으시면 모든 결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CT사진은 우측 요관 중간에 위치했던 요로결석으로, CT촬영시 결석이 정확하게 관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의원 요관내시경 수술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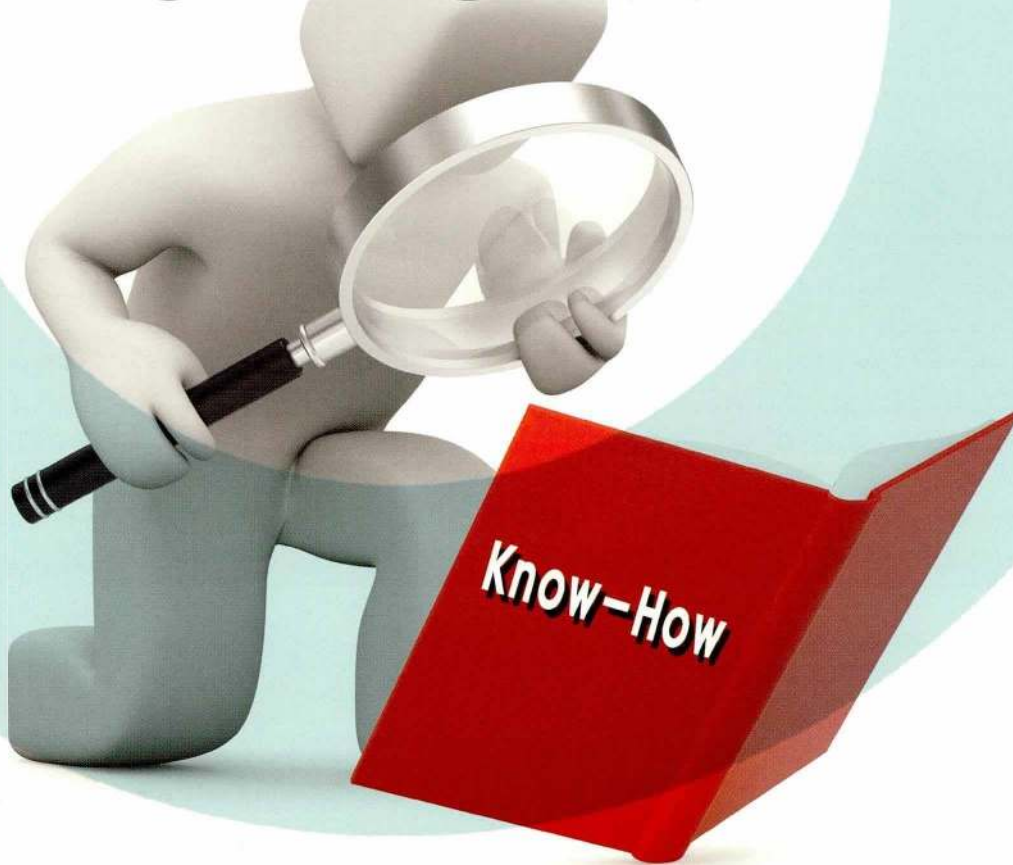
요로결석 치료

크기가 4~5mm 정도의 작은 요로결석은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으나, 이보다 더 큰 크기의 결석은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됩니다. 결석의 종류, 크기, 위치한 부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집니다. MRI장비와 흡사한 장비에 직접 누워서 치료를 받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체내 파장전달을 통해 결석을 분쇄하는 치료입니다. 이 방법은 치료시간이 비교적 짧고 환자에게 마취를 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차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흔하며, 임신부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치료방법입니다. 그 외 치료방법으로 요도를 통해 진입 요관 및 신장 내 결석을 직접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취를 요하는 단점이 있지만, 내시경을 통해 결석제거를 할 수 있어 치료성공률이 높습니다. 요로결석 치료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성공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전 담당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요로결석의 예방관리

요로결석의 예방방법은 식이요법 조절부터 시작해서 약물요법까지 다양합니다. 필자는 식이요법을 통한 결석을 예방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금하는 음식이 많아, 평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요로결석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는 대사장애를 비롯해 평소 섭취하는 식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사검사를 받고, 식단을 적절히 조절해야겠습니다. 저는 요로결석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섭취를 권장합니다. 수분섭취는 이뇨를 증가시켜 요회석을 통해 요속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달 요로결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AF**

업무 노하우 작성하여 활용합시다



일선현장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과 전사업무수행 시 습득한 중요사항들을 업무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다음 훈련 시 활용은 물론, 제반사항을 습득해 전사업무에 정통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한,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무실에서 보고서 작성, 브리핑 등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지식을 수시로 기록해 두었다가 시간이 여유로울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립뿐만 아니라,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러한 습관은 업무수행 목표설정뿐만 아니라, 업무를 구체화하는 데도 용이하다.

업무 노하우를 작성 및 활용함으로써, 개인 업무능력 수준향상 및 부대발전, 후임자에게도 지대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일선현장 지휘관 및 참모로 근무할 경우에는 인사명령이 나오게 되면 대략 1달 정도 시간이 있다. 복무할 목표와 계획을 먼저 작성하자. 그 다음 수

시로 점검, 보완하여 완성한 후 업무를 시작하면 일을 숙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 선배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인용하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전에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1주일간은 충분히 잠을 자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Top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업무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하여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년 계획을 12월에 작성한 다음, 1월 초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단순하고 쉬운 일부터 미리 계획한다. 매 시기마다 15일 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면 1년 내내 시간적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과제가 부여돼도 항상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는 습관은 업무를 훨씬 앞서가게 만든다.

예방정비 노하우는 결함이 발생하기 이전, 미리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결함이 발생한 후, 조치하는 것은 한 차원 낮은 정비로 결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결함이 발생하는 추세를 최소 5년에서 10년, 20년 동안의 경향성을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러면 결함원인의 80% 이상을

Change of mind, Change of method, Change of mood

차지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제작공정상의 문제, 자재상의 문제,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 문제, 장착상의 문제, 신형부품 문제, 프로그램상의 문제 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이나 관련요소를 끝까지 추적하는 '고장탐구 마인드'를 가지고 분석한다. 관련 부품의 외부요인 대신 내부를 수술하듯 절단하여 분해하면 의외로 결함원인은 사소한 데 있다. Cotter Pin 연결, Switch 접점불량, Sealing Compound 처리 미흡 등 사소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에서 결함원인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또한 근본원인을 찾은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하다보면, 자연스레 예방정비대책 및 작업측면 문제까지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뿌리를 차단하고, 결함을 대폭 감소시켜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환하고, 더 이상의 기능점검과 내부 분해점검 및 Test를 하지 않으면 기술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게 된다. 당연히 기술축적도 안될 뿐더러 발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분해점검 방식이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들을 체크리스트해 지속 적용한다면 후배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창의적인 예방정비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다.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청취도 매우 중요하다. 현장 실무자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개선방법을 몰라 추진이 되지 않은 사항들이 의외로 많다.

안전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스템이 능동적이며 유기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상관의 지시가 있어도, 말단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무용지물이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5단계가 있다. 말해도 듣지 않고,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해했어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동의하였으나 행동하지 않으면 전달된 것이 아니다. 특히, 부하가 많은 집단인 경우, 지휘 폭(Span of Control)이 크기 때문에 지휘관은 차상급 4~6명, 차상급은 그 아래 4~6명 순으로 지시, 통제,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면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자연히 안전관리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지휘관 등 누구든 공백이 발생해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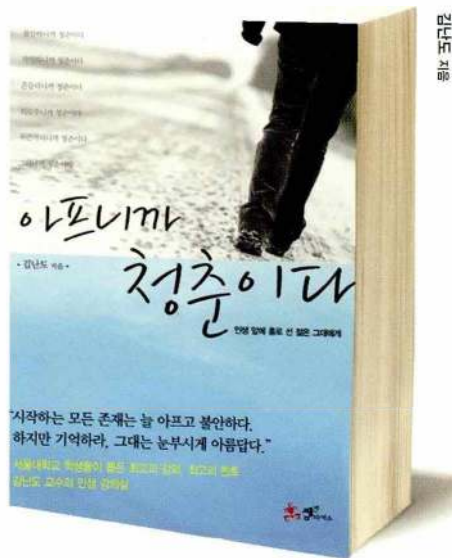
그 밖에 중요한 일을 시킨 다음에는 Sample Check를 통해, 제대로 일

이 수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른 일도 반드시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사가 본인이 실수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알리고 공유하는 것도 효과가 크다. 단적인 예로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시행한 'Mistake Proofing' 대회가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정비사들은 잘못된 정비습관 및 절차를 개선해 인적과실을 방지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전 요원이 사고사례를 자기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활용하는 노하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1분 이내의 분량으로 메모를 해본다. 제목은 간결하게 정하고, 개요는 제목을 보충 설명함과 동시에 보고서의 목적이 들어가도록 한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보고받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나열한다. 논리성을 점검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은 강조해준다. 문제에 대한 요소, 대안수립, 결론 및 최선방안을 건의형식으로 육하원칙에 입각해 작성한다. 보고서를 작성 후에는 3번씩 정성을 다해 가볍게 소리 내어 읽고 확인한다. 또한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수행의 긍정적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선 계절적 특성과 기상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부서원 자체 전술토의, 내부진단을 통한 개선점을 스스로 도출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주인정신도 필요하다. 즉,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Change of mind, Change of method, Change of mood로 재차 주변을 환기시키면 업무성과도 크게 나타나면서 개선과제 발체건수도 많아진다.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듣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자. 이를 잘 정리해 활용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대업무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는 후임자에게 도움이 될 뿐더러, 크게는 공군, 작계는 병과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특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안은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혼을 쏟아 붓는 정신으로 매사에 임하면, 자신도 모르는 새 노하우가 축적된 업무전문가로 변신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Idea Bank'로 기억된다는 사실이다. **AF**



얼마 전, 임신 중인 아내가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다고 하여 연애시절 가끔 들렀던 계룡대 근처 냉면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냉면 두 그릇을 주문해 한참을 먹고 있는데, 여고생 네댓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들은 냉면을 주문하고는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리 즐겁고 유쾌한지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까르르 웃고 즐기는 모습이 마냥 행복해보였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온 후 식사를 하면서도 그 친구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웃고 또 웃었습니다.

순간 지난 달 초, 어린이날 즈음하여 보도된 기사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년 연속 꼴찌”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인 10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5.98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들은 이토록 행복해 보이는데 과연 무엇이 그들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일까요? 공부, 시험, 성적, 입시, 대학 등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무엇인가 죄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고교시절에는 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행복의 문이 찬란하게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대학생들 역시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아도 그리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학점, 자격증, 영어실력, 아르바이트, 군대, 취업, 연애 등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해야만 하니까요.

이번 달에는 이처럼 또 다른 고민들로 아파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쓰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만난 젊은이들과 함께 느끼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두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같은 고민을 먼저 해보았던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비단 젊은이들, 대학생들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저자의 말처럼 인생을 80세까지라고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시계는 24시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던 시절, 그 값진 젊음을 아깝게 허비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일보다는, 일주일, 한 달, 일 년 뒤보다는 훨씬 더 젊은 순간이니깐요.

저희 부부 옆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들던 그 여고생들도 부디 이 책을 통해 청춘의 아픔을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어서도, 나이 지긋한 중년부인,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서도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 날의 해맑은 모습처럼 늘 행복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AF**

2011 June

no.396

P O S T C A R 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5.1~2012.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2011 June

no.396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월간 「공군」 6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6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6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6월 30일까지

1.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본토를 공습한 작전으로 B-25 폭격기가 수행한 최장거리 작전으로 기록되는 이 작전은 무엇인가?
2. 사람이 되고 싶었던 물의 요정 이야기로 드보르작이 작곡한 이 오페라는 무엇인가?
3. 한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이 농축되면서 요석을 형성하는 질환은 무엇인가?

4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레드머플러 2. 오딘 3. 베를린국립미술관

퀴즈 당첨자

전북 익산시 김유민 ● 대전 유성구 이정민 ● 충남 홍성군 이충재
서울 영등포 조창희 ● 경북 구미시 신재근 ● 전북 장수군 양서희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WANTED



월간「공군」결손호를 찾습니다.

안타깝게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는 월간 공군의 책장을 독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아래 결손호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보내 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호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결손호: 코메트(공군지 전신)52~72호

공군지 99~102호, 157~158호, 160~170호,

173~177호 183~187호, 220호, 240호